E 01-2018-02

2018 여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dgpark@krei.re.kr, 신유선 shinys@krei.re.kr 김문희 kmh0618@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4
3. 소비 ····· 6
4. 물가 ····· 8
5. 금융·환율 ····· 13
6. 세계경제 ····· 15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7
2. 농촌 물가 ····· 18
3. 농림어업 취업자 ····· 21
4. 농축산물 수출입 ····· 23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5
3. 양념채소 ····· 40
4. 과일 ····· 49
5. 과채 ····· 55
6. 축산 ····· 64

Ⅳ. 음식물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71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72

특별주제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 83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 100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 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 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 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최근 우리경제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나, 투자·소비 등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으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8%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p					2018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0.6	0.7	1.0	0.6	1.4	−0.2	1.0	0.7(2.9)
민간소비	0.4	0.8	0.5	1.0	0.8	1.0	0.7	0.3(2.8)
정부소비	0.9	1.1	0.6	1.2	1.9	0.5	2.2	0.3(4.8)
건설투자	3.0	1.0	4.2	0.9	1.1	−2.3	1.8	−1.3(−0.7)
설비투자	0.9	2.1	4.5	4.3	0.2	−0.7	3.4	−6.6(−3.9)
총 수 출	0.4	−0.1	2.1	−2.7	5.6	−5.3	4.4	0.8(5.2)
총 수 입	0.9	1.1	4.9	−1.0	3.2	−2.9	4.9	−2.6(2.4)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18.7.26.)」,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7.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 2018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전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6.6% 감소함.
  - 수출은 반도체,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8% 증가함.
  - 수입은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줄어 전기 대비 2.6% 감소함.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유지함.
  -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2.5% 감소함.
  - 제조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함.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6%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p					2018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1.1	0.5	3.9	−0.3	−1.8	0.2	6.0	−2.5(1.5)
제조업	0.8	0.7	1.7	0.1	2.7	−1.7	1.6	0.7(3.3)
서비스업	0.5	0.6	0.4	0.7	1.0	0.3	1.1	0.6(3.1)
(도소매 및 음식숙박)	0.4	0.2	−1.3	0.6	1.2	0.4	−0.8	0.9(1.7)
(금융및보험업)	0.7	0.7	0.7	2.1	0.3	−0.4	3.7	1.0(4.7)
(부동산 및 임대)	0.0	0.4	1.9	−0.7	0.6	−0.2	2.6	−0.5(2.5)
(정보통신)	0.7	1.1	0.9	−0.5	2.4	1.5	1.1	−1.1(3.9)
(문화및기타서비스)	0.4	0.0	−0.7	2.0	0.4	−1.8	3.6	−0.7(1.3)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면,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중에는 2.9%, 2019년에는 2.8%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임.
  - 금년 중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위험이 있으나 수출의 양호한 증가세와 소비의 개선흐름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9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임.
  - 양호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면서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용여건의 개선 지연과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의 요인은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 IT부문은 반도체 투자의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의 대폭 하락이 예상됨.
  - 여타 업종은 신기술부문 및 자동화설비 등이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증가율의 소폭 하락이 전망됨.
  - R&D 투자는 기업 매출액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주거용 건물은 공급(입주)물량의 확대와 수주 부진 등에 의한 영향으로 증가폭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및 공업용 건물 건설의 부진 등으로 금년 중 감소로 전환될 전망임.
  - 토목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감소세의 지속이 예상됨.

-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이 개선됨에 따라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통관수출은 물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나 단가 상승세의 둔화로 증가율의 하락이 전망됨.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7	2018e)			2019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1	2.9	2.8	2.9	2.8	2.8	2.8
민간소비	2.6	3.1	2.2	2.7	2.5	2.8	2.7
설비투자	14.6	1.8	0.6	1.2	0.8	2.7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2.6	2.7	2.7	2.5	2.6
건설투자	7.6	0.7	−1.5	−0.5	−2.6	−1.8	−2.2
상품수출	3.8	3.0	4.0	3.5	3.9	3.1	3.5
상품수입	7.4	2.5	3.4	3.0	2.1	3.7	2.9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8.7.12.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참고함.
2. 2018e), 2019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3)]

- 2018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1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2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6월 고용동향(2018.7.11.)」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7.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임금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262	27,993	27,961	27,775	27,464	28,125	0.5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2.2	63.8	63.6	63.1	62.3	63.7	–0.2
취 업 자	26,409	26,725	26,100	26,919	26,998	26,883	26,283	27,019	0
• 농 림 어 업	1,273	1,279	1,003	1,405	1,418	1,288	1,056	1,457	3.7
• 광 공 업	4,603	4,589	4,551	4,601	4,594	4,609	4,597	4,509	–2.0
(제 조 업)	4,584	4,566	4,530	4,579	4,570	4,586	4,575	4,487	–2.0
• 건 설 업	1,869	1,988	1,908	2,015	1,990	2,038	1,977	2,031	0.8
• 도소매·음식숙박업	6,045	6,083	6,098	6,053	6,111	6,070	6,000	5,979	–1.2
실 업 자	1,009	1,023	1,162	1,074	963	892	1,181	1,105	2.9
실업률(계절조정)	–	–	3.7	3.5	3.5	3.4	3.7	3.8	8.6

자료: 통계청

3. 소비[4)]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7% 증가함.
- 2018년 5월 의복 등 준내구재(2.8%)는 증가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3.3%) 및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는 감소하였음.
- 백화점과 할인점 판매, 카드 국내승인액의 증가 등은 소매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승용차 판매의 부진 등의 요인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p	5월p
민 간 소 비	2.5	2.6	0.5	1	0.8	1	0.7	–	–
소 매 판 매	3.9	1.9	0.4	1.0	0.2	0.9	3	−0.9	−1
(내 구 재)[1]	4.6	5.4	1.0	5.2	−3.0	1.4	5.4	1.3	−3.3
(준내구재)[2]	2.3	−1.1	−1.3	−0.5	1.1	1.4	2.8	−5.9	2.8
(비내구재)[3]	4.2	1.7	0.8	−0.5	1.4	0.5	2.1	0.3	−1.4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8년 4월p, 5월p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18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 2천 원으로 전분기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인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2%, 6.1%, 5.7% 증가하였으며, 재산소득 증가율은 3.4%로 가장 낮았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7.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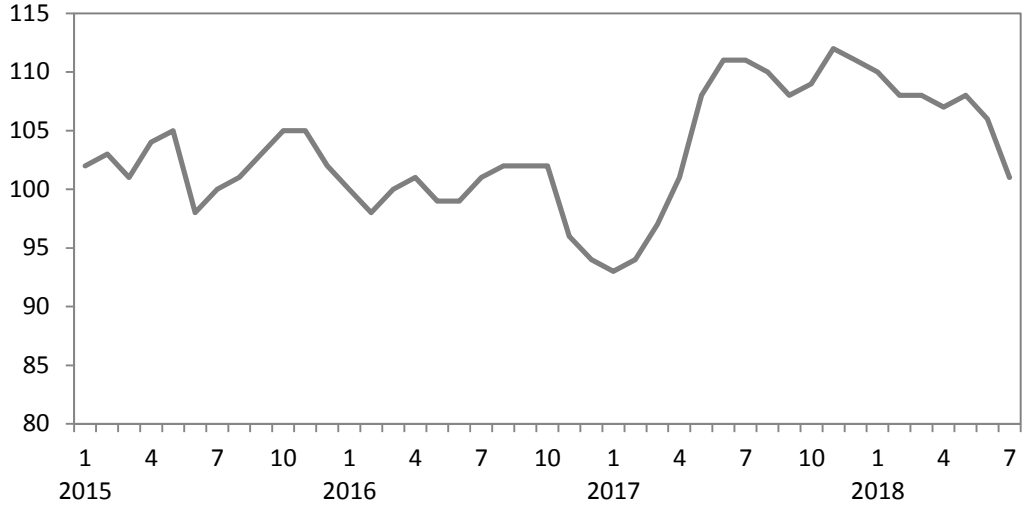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 득	0.6	0.8	0.8	0.7	0.2	0.8	0.9	2.1	3.1	3.7
경상소득	1.1	0.8	1.7	1.4	1.0	0.8	1.1	2.5	3.4	7.5
(근로소득)	1.0	0.3	1.9	1.9	0.4	0.0	0.5	1.6	0.9	6.1
(사업소득)	1.5	3.3	0.2	1.1	2.2	0.9	4.1	6.2	8.5	5.7
(재산소득)	−18.4	−21.0	−9.8	−31.9	−4.4	15.2	12.9	34.4	9.5	3.4
(이전소득)	2.1	0.7	3.8	0.4	2.9	5.3	−1.6	1.0	10.1	19.2
비경상소득	−14.5	2.3	−21.4	−23.4	−23.9	1.7	−4.0	−18.0	−11.7	−79.2

자료: 통계청

- 2018년 7월 소비심리지수[5]는 전월(106) 대비 소폭 감소한 101로 전년 동월(111) 대비 9% 감소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하였음.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2.9	102.7	102.7	103.3	103.1	104.0	104.3
	(1.9)	(2.1)	(1.9)	(2.3)	(1.5)	(1.3)	(1.5)
상 품	101.3	101.4	100.9	101.8	101.2	102.2	102.4
	(1.9)	(2.0)	(1.8)	(2.9)	(1.0)	(0.8)	(1.4)
농축수산물	109.5	110.0	107.7	112.9	107.5	111.9	110.8
	(5.5)	(6.1)	(6.1)	(8.4)	(1.4)	(1.7)	(2.9)
공업 제품	100.9	101.0	100.8	100.6	101.4	101.9	102.4
	(1.4)	(2.1)	(1.3)	(0.9)	(1.5)	(0.9)	(1.6)
전기·수도·가스	89.5	89.1	90.3	90.4	88.4	87.5	87.5
	(−1.4)	(−6.9)	(−2.4)	(8.0)	(−3.3)	−(1.8)	−(3.0)
서 비 스	104.3	103.7	104.2	104.6	104.6	105.4	105.9
	(2.0)	(2.1)	(2.0)	(1.9)	(1.9)	(1.6)	(1.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상품과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6% 상승함.
  - 2018년 6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축산물 가격 안정세의 지속과 봄작형의 본격 출하에 따른 채소류의 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의해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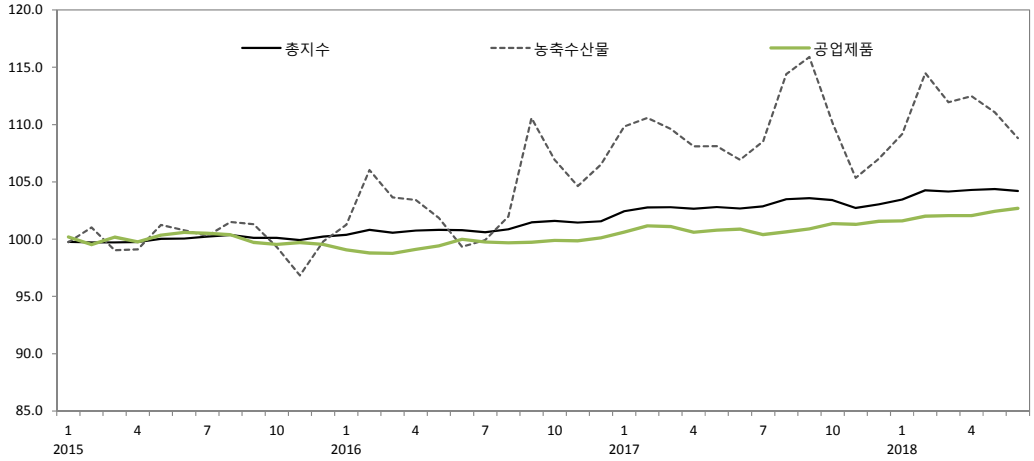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18.7.3.)」, 통계청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18.7.3.)」, 한국은행 「2018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18.7.20.)」, 「2018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18.7.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2018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주류·담배, 의류·신발, 교육은 변동이 없으며, 교통, 보건,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는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통신은 하락하였고 교통 등 10개 부분은 모두 상승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로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1% 하락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물, 채소, 기타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 9.4%, 26.9% 상승하였으며, 과실은 1%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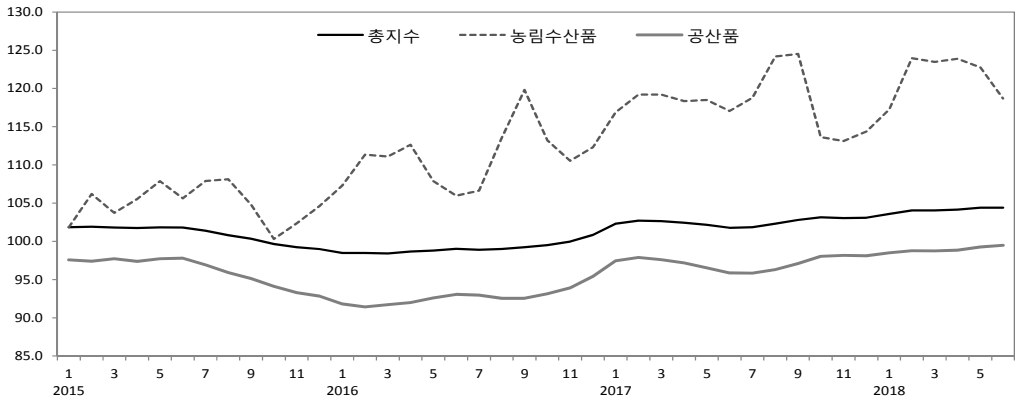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7					2018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9.5	110.0	107.7	112.9	107.5	111.9	110.8	2.9	-1.0
농산물	108.5	110.6	104.1	113.7	105.7	115.0	112.7	8.2	-2.1
곡물	88.7	86.3	85.4	87.2	95.9	100.5	105.3	23.3	4.8
채소	115.8	126.4	102.1	127.5	107.1	122.4	111.7	9.4	-8.7
과실	112.7	109.8	116.8	116.9	107.5	113.6	115.6	-1.0	1.8
기타농산물	103.2	100.2	96.7	99.0	117.0	126.1	122.8	26.9	-2.7
축산물	111.2	109.9	112.8	113.8	108.3	105.3	105.1	-6.8	-0.1
수산물	109.8	108.3	110.4	108.3	112.3	114.2	115.7	4.8	1.3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4.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함.
  - 2018년 6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3.3% 하락함.
  - 공산품은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 서비스는 사업서비스 등이 올랐으나 금융 및 보험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임.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4.82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변함이 없음.
- 2018년 6월 수출물가지수는 85.68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제1차 금속제품 및 일반 기계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함.
- 2018년 2/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2.88로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함. 6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2.68로 전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8.9% 하락함.
- 2018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4.71로 전년 동기와 변함이 없음.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제1차 금속제품 및 일반기계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85.7	86.2	84.8	86.0	85.9	84.34	84.82	84.93	85.68
	(6.1)	(5.8)	(6.2)	(10.0)	(2.8)	-(2.1)	(0.0)	(0.4)	(1.6)
농림수산품	109.5	104.8	109.6	114.3	109.3	103.59	102.88	101.87	102.68
	(7.4)	(6.1)	(7.5)	(11.4)	(4.7)	-(1.1)	-(6.1)	-(7.7)	-(8.9)
농 산 물	143.4	139.8	149.7	151.0	132.9	130.78	135.85	135.53	137.59
	(-1.6)	(-4.0)	(4.4)	(-1.2)	(-5.5)	-(6.4)	-(9.3)	-(13.0)	-(12.1)
공 산 품	85.6	86.1	84.7	85.8	85.8	84.22	84.71	84.83	85.57
	(6.1)	(5.8)	(6.2)	(10.0)	(2.7)	-(2.1)	(0.0)	(0.5)	(1.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6.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전분기 대비 3.9% 상승함.
- 2018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88.26으로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0.9%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2% 상승함.
  - 2018년 6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7%, 1% 상승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제1차 금속제품 및 전기·전자기기 등이 올라 전월대비 1.4% 상승함.
- 2018년 6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93.64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82.0	83.18	80.64	81.32	82.84	83.49	86.73	87.13	88.26
	(6.5)	(9.7)	(5.0)	(8.4)	(3.2)	(0.4)	(7.6)	(8.1)	(10.9)
농림수산품	94.0	97.9	93.68	92.9	91.34	90.83	92.79	92.64	93.64
	(0.2)	(5.1)	(0.4)	(1.0)	(−5.4)	−(7.2)	−(1.0)	−(0.4)	(0.6)
농 산 물	82.9	86.83	81.61	82.54	80.54	81.01	84.02	83.75	84.57
	(0.8)	(5.2)	(−0.7)	(2.9)	(−4.0)	−(6.7)	(3.0)	(3.4)	(4.5)
축 산 물	113.7	117.14	114.55	112.07	110.89	109.31	107.78	108.16	108.36
	(−1.8)	(3.4)	(0.7)	(−2.5)	(−8.3)	−(6.7)	−(5.9)	−(5.7)	−(5.4)
공 산 품	84.6	85.81	83.2	84.41	84.9	84.5	86.2	86.3	87.3
	(1.7)	(2.2)	(−0.2)	(4.1)	(0.9)	−(1.5)	(3.6)	(4.1)	(5.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18년 5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2018년 5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MMF,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타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8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7									2018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9.9	9.5	9.3	9.5	9.1	7.9	9.8	7.2	6.9	6.3	8.1	6.6	6.2	6.2
M2[2]	6.6	6.1	5.9	5.1	4.6	4.6	4.7	4.8	4.7	5.5	6.2	5.8	5.7	5.9
Lf[3]	7.4	7.1	6.7	6.5	6.2	5.9	5.9	5.8	6.1	6.4	6.8	6.7	6.6	6.6
본원통화[4]	10.8	9.9	10.9	10.3	9.4	8.8	12.9	9.8	10.6	6.7	9.2	10.8	8.0	7.4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8년 6월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상당폭 하락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8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8.7.11.)」과 「2018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18.7.11.)」, 「2018년 6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18.7.11.)」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회사채(3년)금리 역시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변동 양상을 보임.
- 단기시장금리는 분기말 MMF 수신 감소 등으로 상승함.
- 코스피는 주요국간 무역분쟁 확산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7					201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1.78	1.79	2.03	2.15	2.10	2.19	2.28	2.27	2.19	2.25	2.18
회사채[1]	2.32	2.33	2.57	2.71	2.65	2.72	2.82	2.83	2.79	2.86	2.81
CD유통수익률(91일)	1.39	1.38	1.38	1.45	1.66	1.66	1.65	1.65	1.65	1.65	1.65
콜금리[2]	1.23	1.25	1.25	1.26	1.51	1.49	1.49	1.49	1.47	1.50	1.49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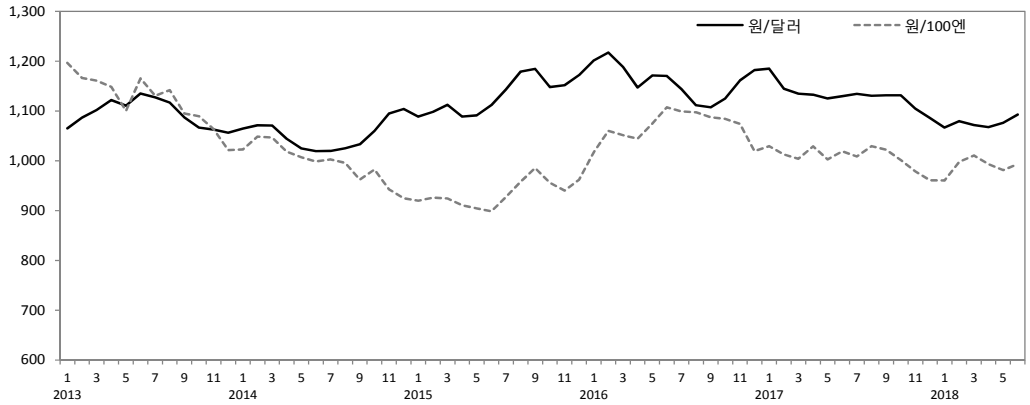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7원 상승한 1,079원임.
  - 6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무역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
- 2018년 2/4분기 원/위안 환율은 169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원/100엔 환율 역시 전분기와 비슷한 989원임.
  - 6월 원/100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하고, 원/위안 환율은 양통화 간 동조화로 보합세를 보임.
- 2018년 6월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전월 대비 확대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의 기간 중 표준편차는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31	1,161	1,154	1,129	1,132	1,106	1,072	1,079	1,076	1,093
원/100엔	935	1,068	1,015	1,017	1,020	979	989	989	981	993
원/유로	1,255	1,283	1,230	1,243	1,330	1,302	1,317	1,287	1,272	1,275
원/위안	180	174	168	165	170	167	169	169	169	169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 미국 경제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생산이 소폭 조정되었으나 고용상황이 양호하여 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 경기지수 역시 양호한 양상을 보이며 견고한 성장세 지속함.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7.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1.5	2.3	1.2	3.1	3.2	2.9	2.0	–	–	–
	산업생산(전기비)	–1.9	1.6	0.2	1.2	–0.4	1.9	0.6	0.5	0.9	–0.1
	소매판매(전기비)	2.9	4.7	1.5	0.6	1.0	2.3	0.4	0.7	0.4	0.8
	실업률(계절조정)	4.9	4.4	4.7	4.3	4.3	4.1	4.1	4.1	3.9	3.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3	2.1	2.6	1.9	2.0	2.1	2.3	2.4	2.5	2.8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7	6.9	6.9	6.9	6.8	6.8	6.8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6.6	6.6	6.9	6.3	6.2	6.8	6.0	7.0	6.8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4	10.2	10.2	10.8	10.3	9.9	9.9	10.1	9.4	8.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	1.6	1.4	1.4	1.6	1.8	2.2	2.1	1.8	1.8
일본	실질GDP(전기비)	0.9	1.7	0.7	0.5	0.5	0.1	–0.2	–	–	–
	산업생산(전기비)	–0.2	4.5	0.2	1.8	0.4	1.6	–1.3	1.4	0.5	–0.2
	소매판매(전기비)	–0.6	1.9	–0.2	0.6	0.1	1.3	–0.6	–0.6	1.3	–1.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0.5	0.3	0.4	0.6	0.6	1.3	1.1	0.6	0.7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9	2.4	0.6	0.7	0.7	0.7	0.4	–	–	–
	산업생산(전기비)	1.6	2.9	0.1	1.2	1.3	1.5	–0.6	0.6	–0.9	–
	소매판매(전기비)	1.6	2.2	0.3	0.8	0.4	0.4	–0.1	0.4	0.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1.5	1.8	1.5	1.4	1.4	1.3	1.3	1.3	1.9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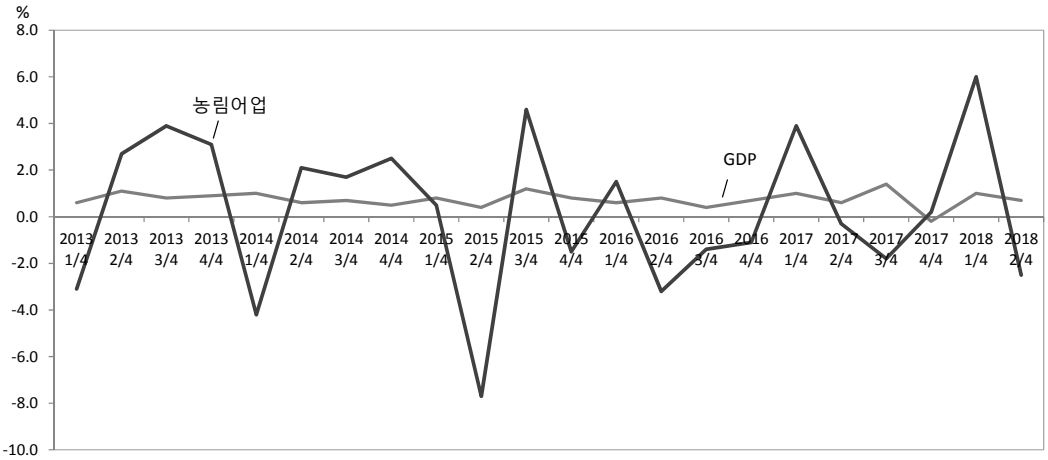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연휴기간 자동차 공장 가동률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향후 일시적인 요인의 해소와 수요회복으로 회복세가 예상됨.
- 유로존 경제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향후 양호한 고용상황을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Ⅱ. 농촌경제 동향[9)]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8년 2/4분기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 2018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 3,35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7% 성장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7년과 2018년 1/4~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 신유선 연구원(shinys@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기타 농산물(특용작물, 화훼 등)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청과물(채소, 과수)과 축산물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2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전분기 대비 8.8% 상승함.
  - 미곡(멥쌀, 찹쌀)과 서류(고구마, 감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2%, 78.0% 상승하였고, 맥류(보리쌀, 맥주보리, 쌀보리)와 두류/잡곡(옥수수, 콩)도 각각 4.6%, 7.9%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2.8로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 전분기보다 24.0% 하락함.
  - 엽채류는 부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32.0% 하락함.
  - 조미채소류는 마늘, 양파, 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전분기 대비 29.4% 하락함.
  - 과채류는 방울토마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8.3% 상승한 반면, 전분기보다 23.1% 하락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3.1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전분기 대비 1.6% 하락함.
  - 복숭아와 포도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사과·배·감귤·단감·자두·매실은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1로 전년 동기 대비 14.7%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7% 상승함.
  - 한육우와 젖소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돼지·육계·오리·계란은 하락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21.1%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2018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2.9	107.6	112.4	109.6	110.8	104.7	-4.5	-5.5
곡물	200.2	91.8	94.5	95.0	93.5	114.2	124.2	32.8	8.8
-미곡	146.0	89.6	86.5	84.0	81.2	105.1	109.0	34.2	3.7
-맥류	8.7	104.6	95.0	132.6	91.9	95.6	96.1	4.6	0.5
-두류/잡곡	27.5	100.3	129.7	140.0	140.1	140.6	151.2	7.9	7.5
-서류	17.9	89.6	105.3	97.2	123.5	157.6	219.8	78.0	39.5
청과물	313.9	111.5	121.8	129.9	124.8	127.0	107.9	-13.5	-15.0
-채소	196.1	109.3	107.6	118.9	93.5	122.1	92.8	-0.7	-24.0
-과수	117.9	115.2	145.4	148.2	176.9	135.2	133.1	-24.8	-1.6
축산물	378.3	102.5	105.8	107.9	111.5	93.5	95.1	-14.7	1.7
-가축	240.7	106.9	101.2	100.5	103.9	96.0	101.5	-2.3	5.7
-기타	137.6	94.9	113.7	120.8	125.0	89.1	84.0	-32.8	-5.7
기타농산물	107.6	99.7	96.7	109.8	87.9	117.9	93.0	5.8	-21.1
-특용작물	64.7	96.4	92.9	95.7	86.2	94.9	86.9	0.8	-8.4
-화훼	39.3	105.5	101.8	132.7	88.8	158.4	103.4	16.4	-34.7
-부산물	3.6	97.3	109.2	113.7	108.6	88.4	88.4	-18.6	0.0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92.6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2%, 0.3% 하락함.
  - 이는 종자종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5%, 1.7%, 1.7%, 3.4% 하락하였기 때문임.

-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3.2% 상승하고, 자산구입비는 0.2% 하락함.
  - 영농광열비·임차료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8%, 1.7% 상승한 반면, 농작업위탁비는 1.4% 하락함.
  - 기계구입은 전년 동기보다 3.3% 상승하고, 가축구입비는 4.8%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2018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99.3	100.9	100.3	101.2	101.6	102.3	1.1	0.7
가계용품	484.8	101.3	103.3	103.1	103.0	104.2	104.5	1.5	0.3
재료비	250.6	94.7	93.2	92.8	93.7	92.9	92.6	−1.2	−0.3
−종자종묘	27.5	100.6	100.6	100.9	102.5	107.7	107.7	5.1	0.0
−비료비	39.0	79.3	75.2	75.2	75.2	72.6	72.6	−3.5	0.0
−농약비	29.3	99.2	96.9	96.9	96.9	95.3	95.3	−1.7	0.0
−사료비	136.0	96.3	95.4	94.7	96.0	94.4	94.4	−1.7	0.0
−영농자재비	18.7	100.1	98.3	98.3	98.3	98.3	95.0	−3.4	−3.4
노무비	45.0	104.1	108.8	105.7	108.6	111.5	114.6	5.5	2.8
경비	129.0	93.9	98.0	98.2	97.8	99.9	100.9	3.2	1.0
−영농광열비	32.6	82.9	94.1	95.2	93.3	101.7	105.2	12.8	3.4
−임차료	40.5	98.5	97.5	97.0	97.2	98.5	98.9	1.7	0.4
−농작업위탁비	42.5	97.3	102.0	102.3	102.3	100.9	100.9	−1.4	0.0
−판매자재비	13.3	96.5	96.5	96.5	96.5	96.5	96.5	0.0	0.0
자산구입비	90.6	106.7	109.4	105.9	113.1	109.7	112.9	−0.2	2.9
−기계구입	58.9	99.4	101.3	100.7	101.2	104.1	104.5	3.3	0.4
−가축구입비	31.7	120.3	124.4	115.7	135.1	120.2	128.6	−4.8	7.0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8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1.5% 상승한 98.0임.
-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은 1.1%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농가교역조건지수

구 분	2017		2018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2.4	109.6	110.8	104.7	-4.5	-5.5
농가구입가격(B)	100.3	101.2	101.6	102.3	1.1	0.7
농업투입재가격	95.8	96.6	97.5	98.0	1.5	0.6
농가교역조건(A/B×100)	112.1	108.3	109.1	102.3	-5.5	-6.2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3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4만 명, 여성은 6.6% 증가한 61만 7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전분기 대비 23.8% 증가한 172만 8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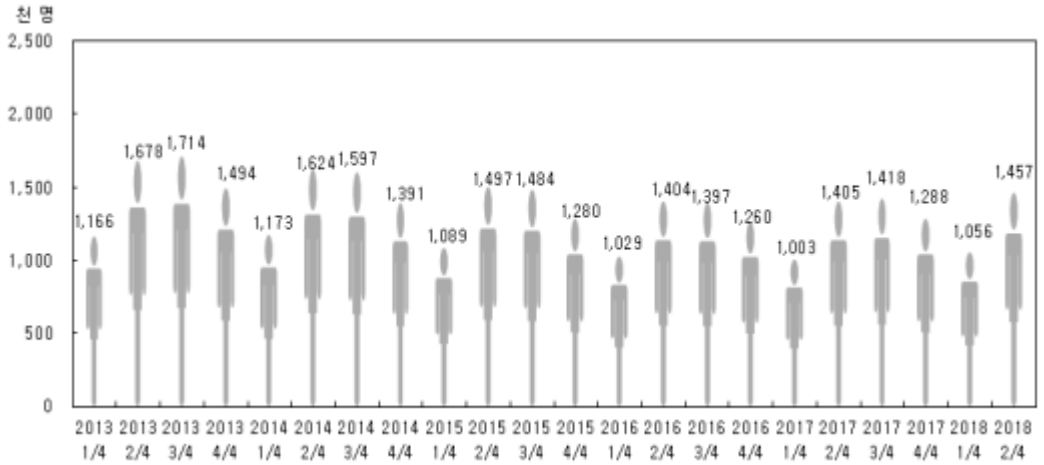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7		2018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100	26,919	26,284	27,019	0.4	2.8
	(계절조정)	26,666	26,682	26,851	26,785	0.4	–0.2
	농림어업	1,003	1,405	1,056	1,457	3.7	38.0
	(계절조정)	1,274	1,270	1,345	1,318	3.8	–2.0
	– 남성	651	826	682	840	1.7	23.2
	– 여성	352	579	375	617	6.6	64.5
	농가	1,324	1,661	1,396	1,728	4.0	23.8
	– 농가남성	803	940	840	964	2.6	14.8
	– 농가여성	520	721	556	764	6.0	37.4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3/4분기 141만 8천 명에서 2018년 1/4분기 105만 6천 명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2/4분기에 145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9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함.
  - 곡류 수출은 쌀 해외원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가금육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66.3% 증가함.
  - 임산물 수출량 22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99	1,641	990	1,651	883	1,658	1,092	1,915	10.2	16.0
농산물	742	1,457	757	1,462	718	1,482	839	1,674	10.8	14.5
–곡류	49	17	12	10	21	24	61	27	406.6	185.3
–과실류	31	61	20	38	32	71	27	52	34.3	38.9
–채소류	22	86	42	88	33	105	35	93	–16.8	6.3
축산물	17	78	19	83	23	80	32	116	66.3	39.7
–포유육류	1	3	0.5	2	1	3	0.4	3	–16.0	8.3
–가금육류	1	3	0.6	3	6	9	11	13	1,650.0	415.4
–낙농품	8	35	8	25	8	30	10	43	32.0	71.5
임산물	241	106	214	107	142	96	221	126	3.2	17.8
수 산 물	115	482	144	636	149	559	153	641	6.5	0.9
전 체	1,114	2,123	1,134	2,287	1,031	2,217	1,245	2,556	9.8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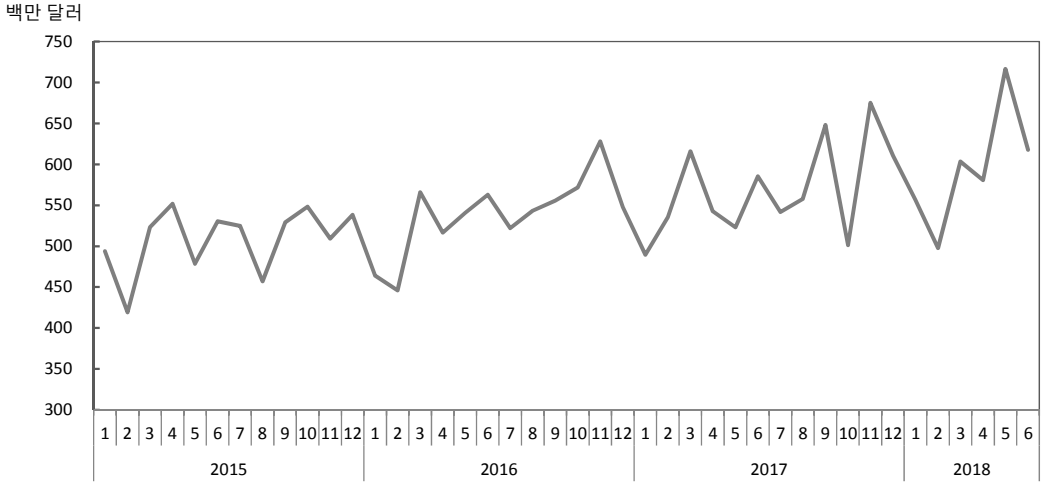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실, 채소류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14.5%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가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39.7%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17.8% 증가함.

● 2018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1,800만 달러로 2월에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6% 증가하였고 2월보다 24.1%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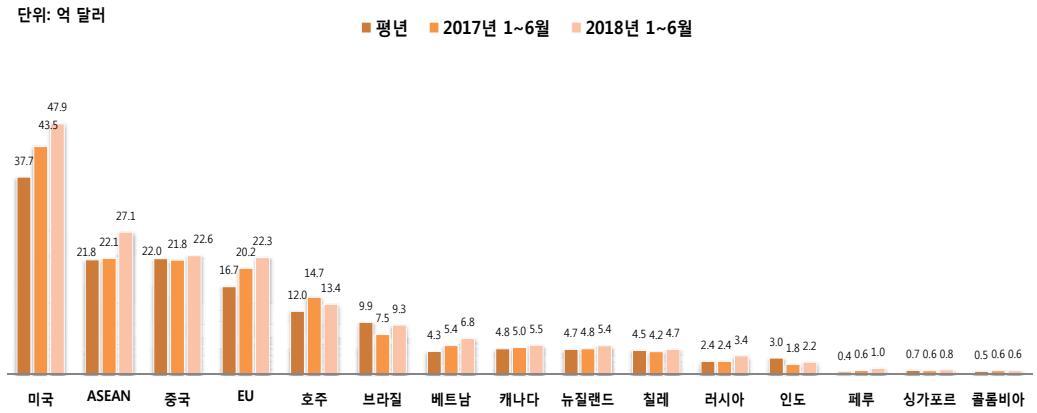
● 2018년 1~6월까지 일본, ASEAN, 중국, EU 등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그 중 ASEAN으로의 누적 수출액(22.6%)이 크게 증가함.

● 2018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7.7로 전분기(130.9) 대비 하락하여 수출경기가 다소 침체될 전망임[10].

- 이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10) 한국무역협회, '2018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8.06.29)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4.2. 수입 동향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98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량은 곡물·과실류·채소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12.5%, 2.5% 증가함.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도 각각 16.1%, 12.5%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옥수수, 밀, 보리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고, 과실류는 오렌지, 망고, 아보카도 등의 수입액 증가로 전년보다 11.5% 증가함.
- 2018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0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반면, 5월 대비 4.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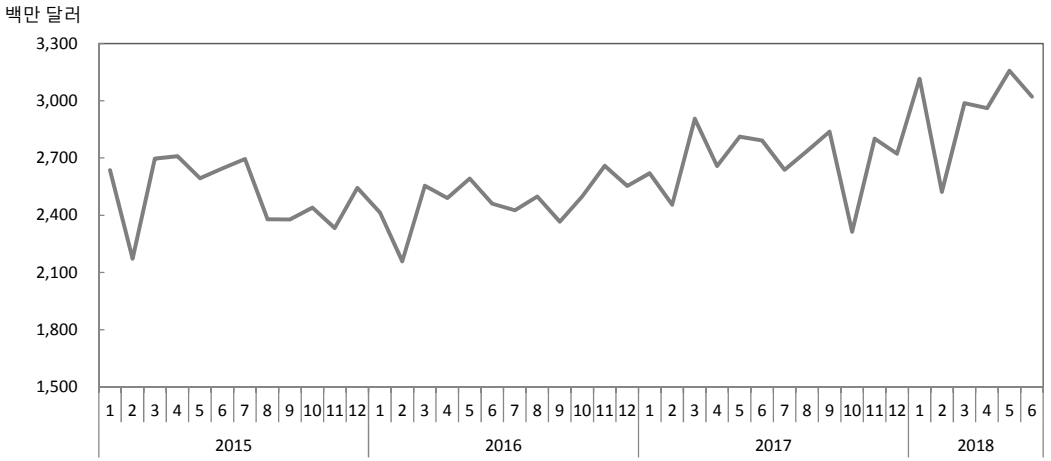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079	7,980	13,345	8,263	13,428	8,624	13,987	9,140	4.8	10.6
농 산 물	8,336	4,684	8,335	4,817	8,443	4,841	8,811	5,206	5.7	8.1
–곡류	3,580	829	3,719	852	3,820	906	3,815	906	2.6	6.4
–과실류	339	519	381	646	333	564	395	720	3.7	11.5
–채소류	313	232	287	236	324	234	295	235	2.8	–0.3
축 산 물	419	1,668	411	1,634	462	1,888	462	1,897	12.5	16.1
–포유육류	258	1,141	245	1,038	288	1,274	280	1,232	14.4	18.7
–가금육류	34	71	31	72	41	89	43	97	39.5	33.8
–낙농품	74	236	74	250	77	272	77	253	4.2	1.0
임 산 물	4,324	1,628	4,599	1,812	4,523	1,896	4,713	2,038	2.5	12.5
수 산 물	1,267	1,267	1,383	1,259	1,725	1,502	1,317	1,512	–4.8	20.1
전 체	14,345	9,247	14,728	9,522	15,153	10,127	15,303	10,652	3.9	11.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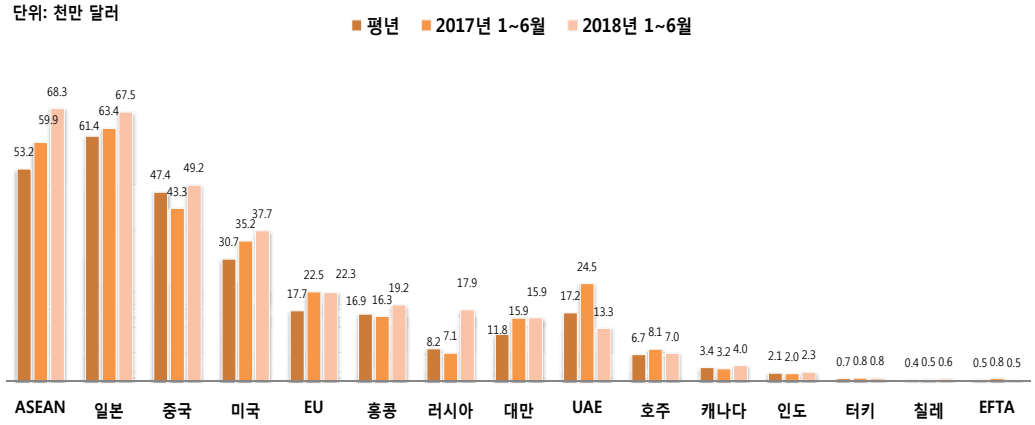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1~6월까지 ASEAN,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그 중 ASEAN으로의 누적 수입액(14.0%)이 크게 증가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천만 달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4.3. 순수입 동향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89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797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43만 1천 톤임.
-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3% 증가하였으며,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14.8%,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년 2/4분기		2018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355	6,612	12,895	7,225	4.4	9.3
농 산 물	7,578	3,355	7,972	3,532	5.2	5.3
축 산 물	392	1,551	431	1,781	9.8	14.8
임 산 물	4,386	1,706	4,493	1,912	2.4	12.1
수 산 물	1,239	624	1,164	871	−6.1	39.6
전 체	13,594	7,235	14,059	8,096	3.4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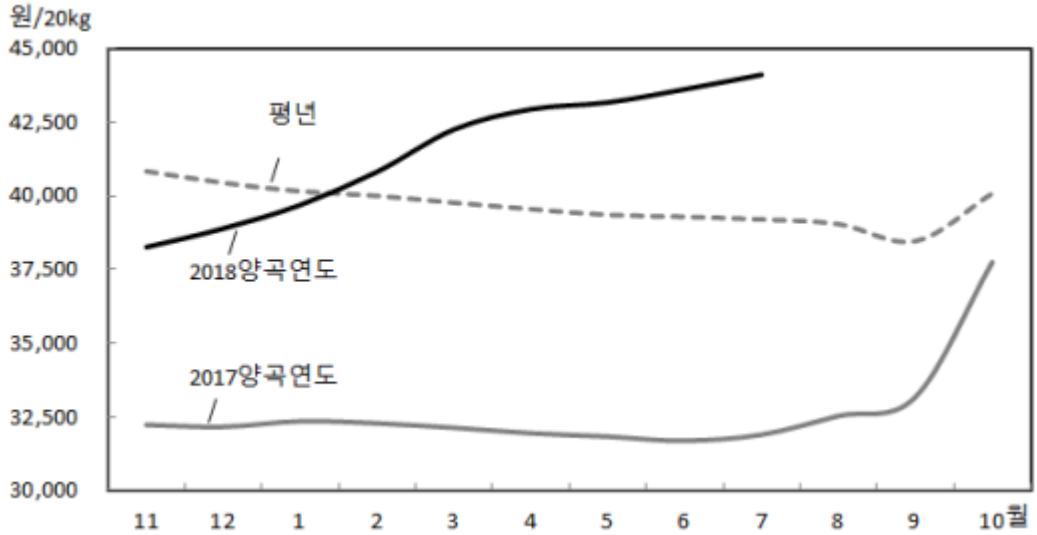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은 최근 5개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동향
  - 산물벼 인도(3.27.)로 수확기 이후 지속되던 산지 쌀 가격의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완화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민현(kimh910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신기석(k.shin@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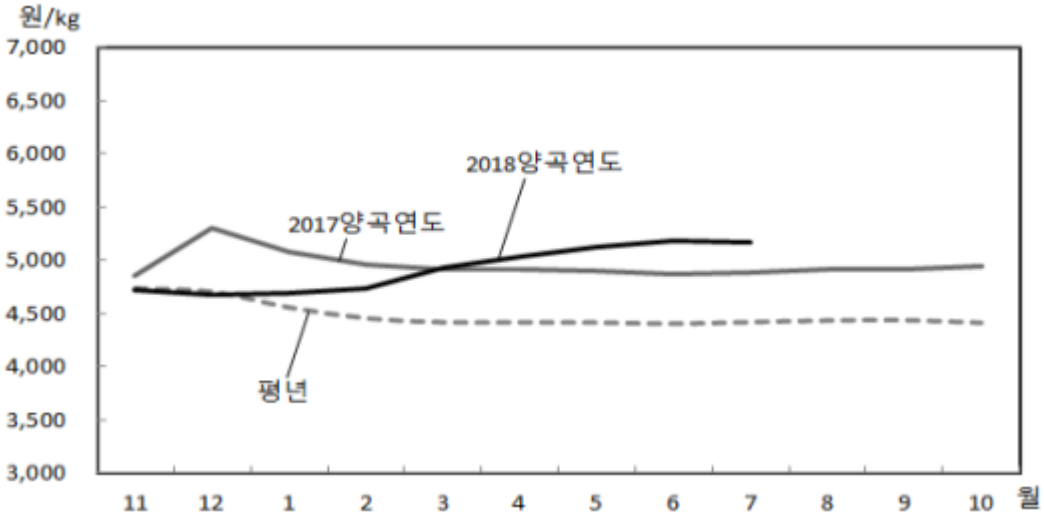
- 이러한 조치에도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5월 들어 쌀 가격 상승폭은 다시 확대
  ※ 4월말 기준, 산지유통업체 재고 부족물량은 14만 ~ 18만 톤 수준
- 2018년 6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4만 3,619원/20kg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37.6% 상승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6월 하순 시행된 정부 쌀 공매(10만 톤)에도 불구하고 평균 낙찰 가격이 6만원/40kg 수준을 상회하여 7월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1.1% 상승한 20kg 기준 4만 4,112원
- 다만, 8월에 정부 추가 공매(4만 톤)가 시행되고, 중순 이후부터 신곡 조생종도 시판되어 단경기 시장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쌀 가격은 현 수준에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벼 생육은 높은 기온과 충분한 일조의 영향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출수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 미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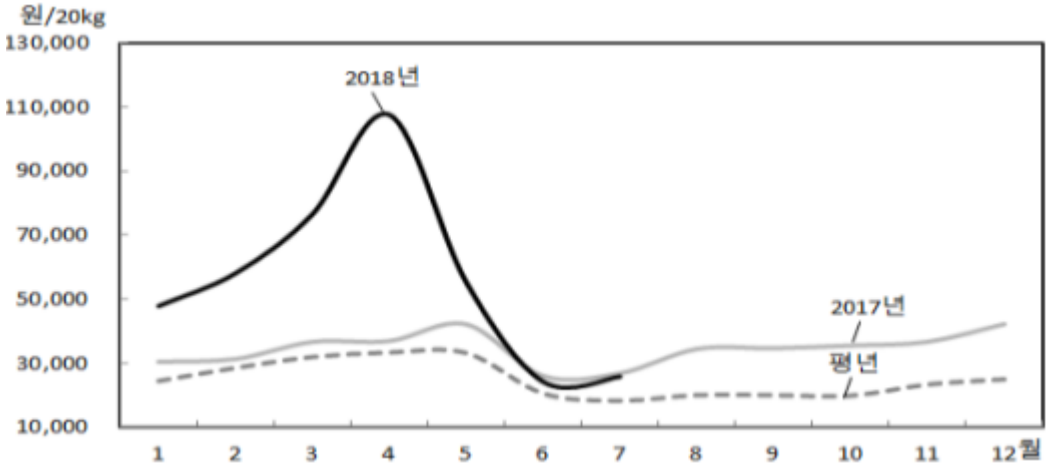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간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018년 2/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전 분기 대비 7.0% 높은 5,113원/kg이었음.
  - 2/4분기 콩 가격은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자제하면서 시장 공급량이 부족하여 6월 중순까지 강보합세를 보였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7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5,165원/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높으나, 전월과 비슷(0.4% 하락)한 수준이었음.
  - 향후 콩 가격은 정부가 9월까지 매월 2천여 톤 내외의 비축물량 방출을 계획하고 있어 단경기까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해당 월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62,370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6%, 평년 동기 대비 114.9% 높은 수준이었음.
  - 감자(수미) 가격은 저장감자 소진, 시설 봄감자 작황 부진으로 4월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5월 이후에는 노지 봄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감자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음.

    * 2018년 노지 봄감자 생산량 추정치: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6만 8,212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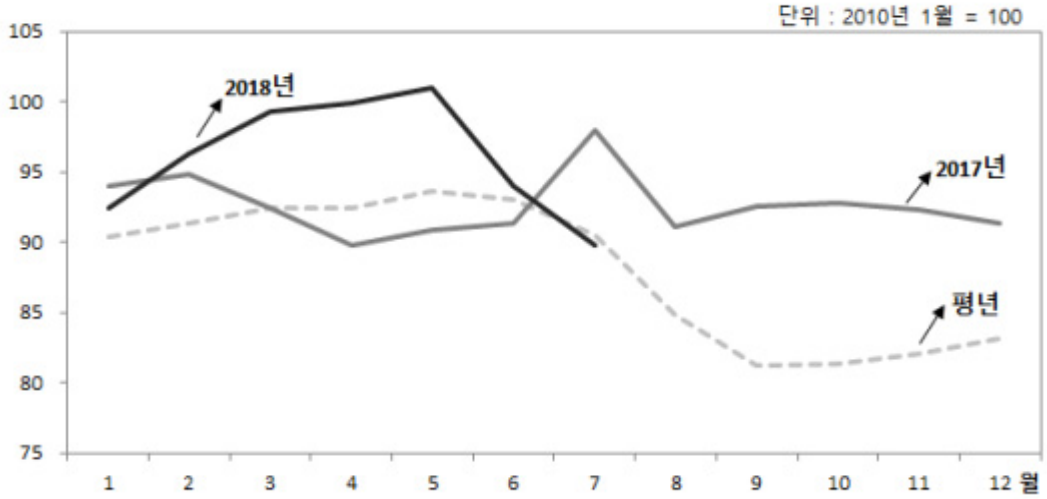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미 도매가격은 25,754원/20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낮으나, 전월 대비 6.4% 높은 수준이었음.
  - 8월 수미 도매가격은 고랭지감자가 파종기 저온 현상, 폭염·가뭄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고,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산지 유통인들이 시장 출하보다는 저장을 선호하여 전년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가락시장 수미 반입량: 212톤(7.16.) → 189(8.6.)

– 다만, 저장 노지 봄감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9월 이후 가격 상승세는 소폭 완화될 가능성 존재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8년 2/4분기 동향
  - 2018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0년 1월=100)는 전 분기 대비 2.2% 상승한 98.3임.
  - 주요 밀 생산국가의 작황 부진, 남미산 옥수수 가뭄 피해 등이 2/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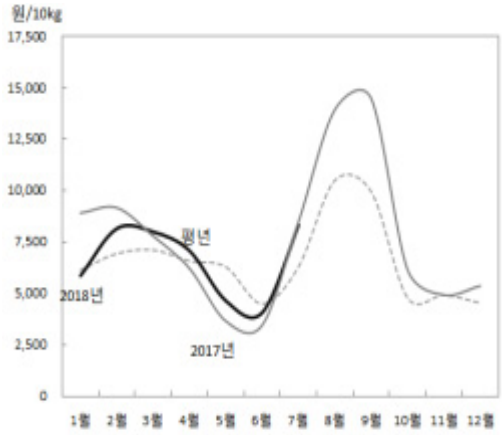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곡물 수출 감소와 최근 미국 곡물의 긍정적인 작황으로 전 분기 대비 6.6% 하락한 91.8로 전망됨.
  - 하지만 주요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EU의 밀 생산량 감소 전망과 호주산 밀의 작황부진으로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7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4.5% 하락한 89.8임. 8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12]는 -1.32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가 전망됨.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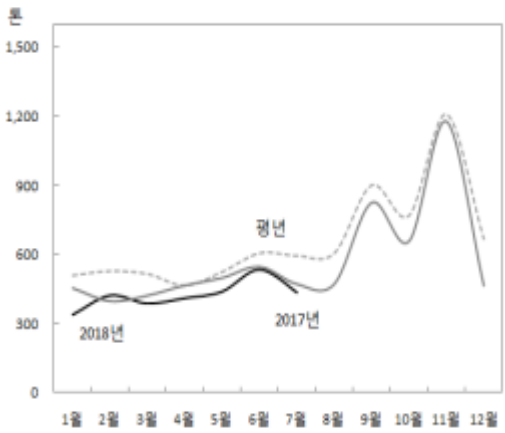
2. 엽근채소[13)]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8% 높은 5,260원/10kg임.
  - 2/4분기 가격은 봄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
    - * 2018년 가격: (4월) 7,080원/10kg, (5월) 4,640원, (6월) 4,060원
    - * 2/4분기 가격: (2018년) 5,260원/10kg, (2017년) 4,440원, (평년) 5,780원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적은 16만 3천 톤 내외 전망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연작피해 등으로 작년보다 5% 감소한 5095ha
    - * 고랭지배추 단수는 7월 중순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평년보다 2~6% 감소한 3141~3242kg/10a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한은수(hanes012@ 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3/4분기 배추 출하량은 고랭지배추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보다 6%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12,300원/10kg) 보다 낮고 평년(8,910원) 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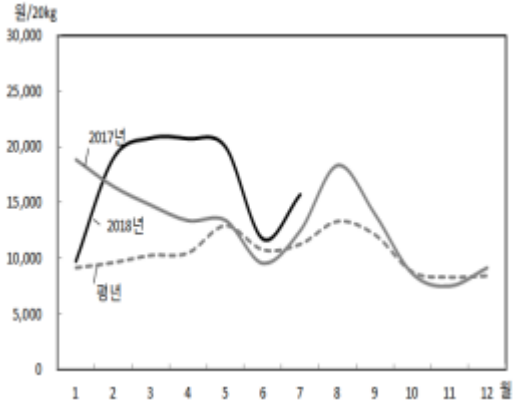
● 2018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7%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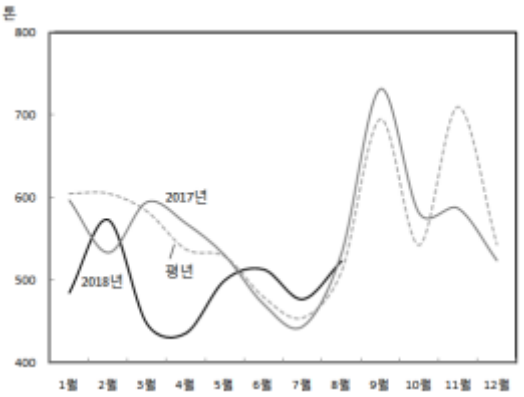
  *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의향이 늘었기 때문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은 17,489원/20kg임.
- 2/4분기 가격은 1월 상순부터 지속된 한파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

  * 2018년 가격: (4월) 20,734원/20kg, (5월) 20,000원, (6월) 11,73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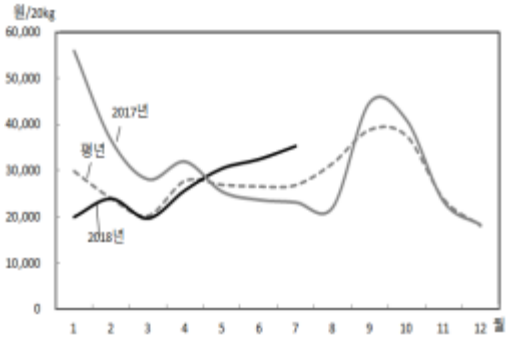
  * 1/4분기 가격: (2018년) 17,489원/20kg, (2017년) 12,115원, (평년) 11,395원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고랭지무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적은 6만 5천 톤 내외 전망
    *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2,388ha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고랭지무 생산량은 추정단수를 적용할 경우, 약 6만 5천 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무 출하량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5%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16,130원/20kg)과 평년(12,230원)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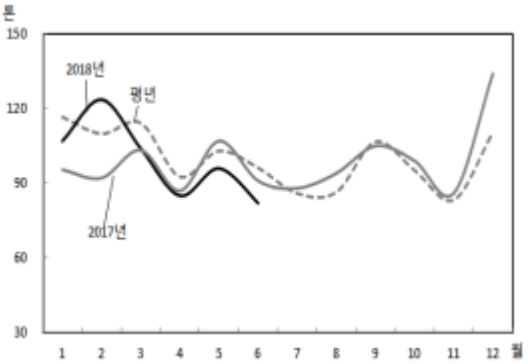
- 2018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 2018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작년 출하기(11~12월) 가격이 낮아 재배의향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대체작목은 감자, 콩, 대파 등으로 나타남.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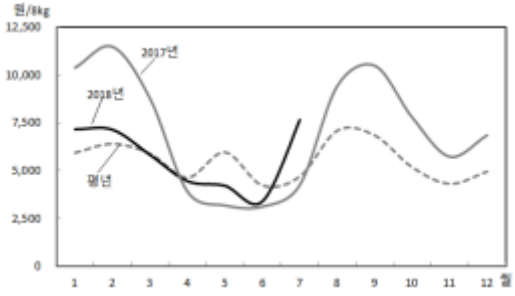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파종기 한파피해로 인한 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9% 상승한 29,530원/20kg임.
    * 2018년 가격: (4월) 25,730원/20kg, (5월) 30,430원, (6월) 32,430원
    * 2/4분기 가격: (2018년) 29,530원/20kg, (2017년) 27,010원, (평년) 27,080원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산 고랭지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천 여 톤 전망
    * 2018년산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0% 증가한 181ha임.
    * 고랭지당근 단수는 작년보다 2% 증가한 2,791kg/10a으로 예상
    * 최근 고온·가뭄이 지속되면서 생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한 수준임.
  - 3/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저장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29,800원/20kg) 및 평년(32,400원)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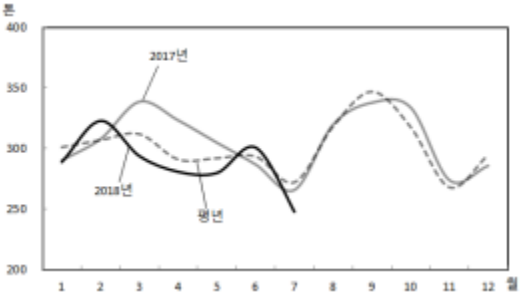
- 2018년 가을·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
  - 2018년 가을·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2%,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18% 높으나, 평년보다는 19% 하락한 4,020원/8kg임.
    * 2018년 가격: (4월) 4,450/8kg, (5월) 4,210원, (6월) 3,390원
    * 2/4분기 가격: (2018년) 4,020원/8kg, (2017년) 3,400원, (평년) 4,9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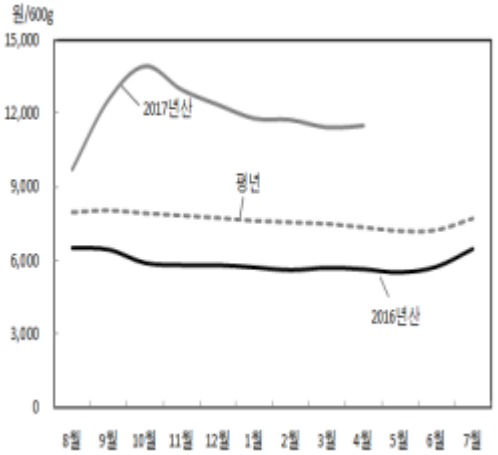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산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4% 증가하고 평년보다 5% 감소한 6만 6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6%, 4% 증가한 1,654ha
    * 단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10%, 8% 감소한 4,013kg/10a으로 전망
    * 7월 중순부터 고온 및 가뭄이 지속되면서 7월 중순~8월 상순 주 출하되는 준고랭지1기작 양배추 작황 크게 부진하며, 8월 중순 이후 출하되는 고랭지양배추 결구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2018년 3/4분기 도매가격은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8,050원/8kg) 및 평년(6,210원)보다는 높을 전망

- 2018년 가을·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8년 가을·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각각 5%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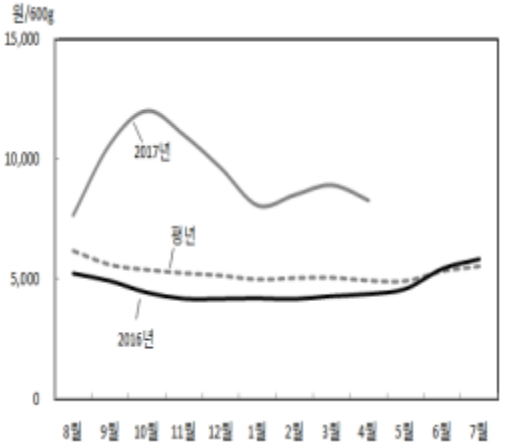
3. 양념채소[14)]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2년 8월~2017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8년 2/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06%, 54% 높은 1만 1,65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두 배 가량 높은 8,35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11,650원/600g, (전년) 5,625원, (평년) 7,261원
    * 산지가격: (금년) 8,346원/600g, (전년) 4,803원, (평년) 5,064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309톤) 대비 24% 적은 235톤임.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산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로 2017년산보다 3% 증가한 2만 9,100 ha로 추정
  - 2018년산 고추 생육 현재까지 양호

    * 2018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7.20.), 평년 대비 '좋음' 17%, '비슷' 64%, '나쁨' 18%

2018년산 고추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경가강원	11.8	77.5	10.8
충 청	31.5	57.9	10.5
호 남	15.4	52.8	31.8
영 남	13.8	72.8	13.5
전 국	17.4	64.3	18.3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8년산 건고추 단위당 수확량은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크게 높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 전망

    * 농업관측센터 단수예측모형 및 기상패턴을 분석한 결과, 10a당 수확량은 246~265kg으로 추정
  - 2018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7년산보다 35% 내외 많으나, 평년보다는 17% 적은 7만 2천~7만 7천 톤으로 전망

2018년산 건고추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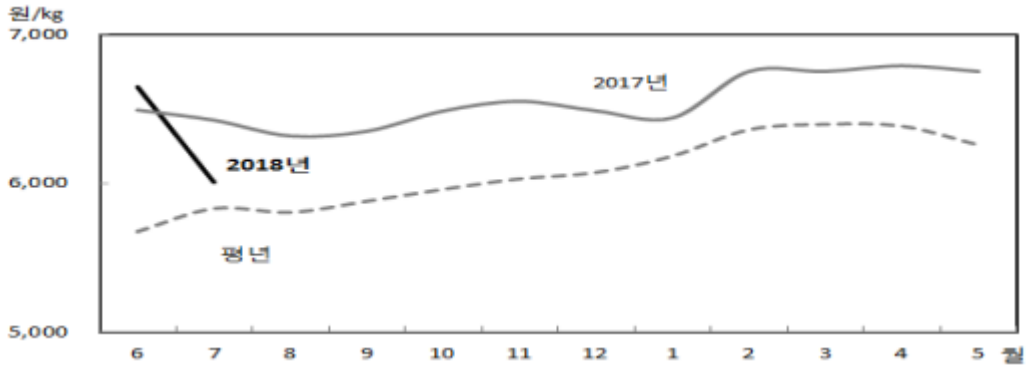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	29,093	246~265	71,569~77,096
2017	28,337	197	55,714
평년	34,272	261	89,406
전년 대비	2.7	31.5~40.6	28.5~38.4
평년 대비	−15.1	−5.7~1.5	−19.9~−13.8

주: 2018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85%, 65% 높고 전월과 비슷한 11,940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고 전월보다 20% 높은 10,105원임.
    * 최근 고온으로 수확이 지연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2018년산 생산량 증가로 햇건고추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고추 3/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동기(12,073원/600g)보다 낮을 전망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3년 6월~2018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8년산 마늘 생산량이 많았으나, 입고가격이 크게 상승한 2017년산 난지형 대서종 마늘의 출하가 이어져 전년 동기와 비슷했음.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6,730원/kg, (전년) 6,750원/kg, (평년) 5,979원/kg
    * 월별 도매가격: (4월) 6,790원/kg, (5월) 6,752원/kg, (6월) 6,648원/kg

- 2018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8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9% 증가한 33만 2천 톤임(통계청, 7. 20.).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한지형이 전년보다 1% 증가한 5,379ha, 난지형이 17% 증가한 22,972ha임.
    * 2018년산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4%, 11% 감소한 1,170kg임.

2018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	28,351	1,170	331,741
2017	24,864	1,221	303,579
평년	23,728	1,316	312,179
전년 대비	14.0	−4.2	9.3
평년 대비	19.5	−11.1	6.3

자료: 통계청

- 2018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18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8만 8천~9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내외 감소 전망
    *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7. 20.), 2018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8% 감소
    * 마늘 입고량 모형 분석 결과, 2018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6% 감소
  - 2018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3,000원/kg 내외로 전년 대비 20% 낮은 수준
    * 남도종과 대서종 입고가격은 3,000원/kg 내외로 전년 대비 각각 9%, 29% 하락

2018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연산	2018	2017	전년 대비
조사치	88,317	95,889	−7.9
추정치	90,240	95,889	−5.9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및 추정치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18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5% 낮은 6,010원/kg
  - 8~9월 마늘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7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18년 대비 감소
  -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생산비 상승 및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 전망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7. 20.), 2019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생산비 부담 증가로 전년 대비 5% 감소 전망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3%, 난지형은 6% 감소(난지형 중 대서종은 9%, 남도종은 3% 감소) 전망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8% 감소 전망
  - 표본농가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6,200~26,870ha로 전년보다 5~8% 감소하나, 평년보다 10~13% 증가

2019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7.0	−3.2	4.6	−2.5	−	−2.6
난지	−19.2	−1.6	0.3	−6.7	−3.4	−5.9
전체	−7.3	−2.3	0.5	−6.1	−3.4	−5.1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19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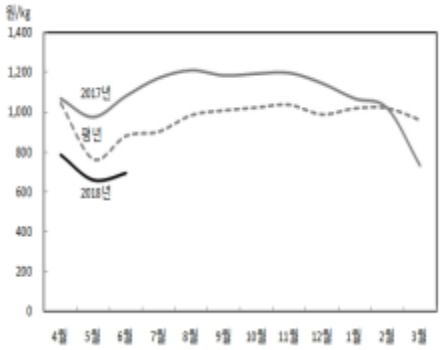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19	26,200~26,870
2018	28,351
평 년	23,728
전년 대비	−5.2~−7.6
평년 대비	10.4~13.2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3년 4월~2018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2% 낮은 상품 kg당 710원이었음.
  - 월별 가격은 4월 790원, 5월 660원, 3월 690원 이었음. 5월 가격이 가장 낮았던 것은 조생종양파와 중만생종양파가 함께 출하되어 시장 반입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임.

    * 2/4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4월) 872톤, (5월) 994톤, (6월) 862톤

- 2018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5%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전년보다 2%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152만 1천 톤으로 확정 발표됨(통계청, 7월 20일).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20만 9천 톤, 중만생종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131만 2천 톤임.

    * 2018년산 양파의 10당 수확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한 5,756kg임.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보다 7% 감소한 5,838kg,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1% 감소한 5,743kg임.

2018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		26,425	5,756	1,521
2017		19,538	5,858	1,144
평년		19,681	6,142	1,243
증감률	전년 대비	35.2	−1.7	32.9
	평년 대비	34.3	−8.9	22.4

자료: 통계청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170원) 및 평년(900원) 대비 각각 37%, 18% 하락한 740원 임. 상품가격은 전월(690원)보다 6% 상승한 반면, 중품(450원)과 하품(230원)은 각각 11%, 19% 하락하여 품위간의 격차가 커짐.
  - 8~9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1,200원) 및 평년(1,000)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8년 대비 감소
  -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8년산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전년 대비 9~13% 감소 전망

2019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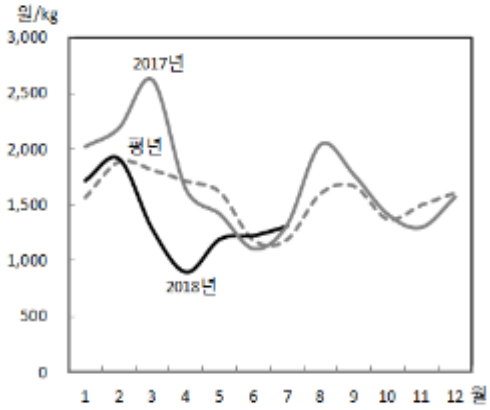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19	22,955~24,034
2018	26,425
평 년	19,682
전년 대비	−13.1~−9.0
평년 대비	16.6~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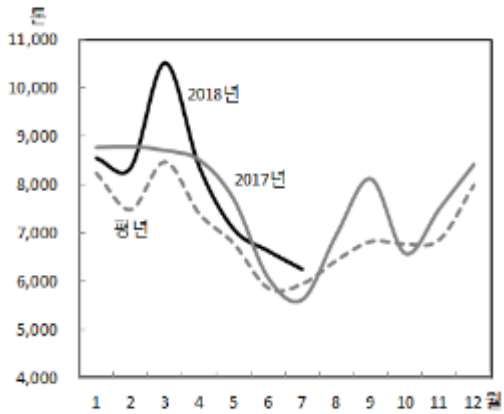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3년 1월~201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100원(중품 89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 27% 낮았음.
    * (금년) 1,104원/kg, (전년) 1,387원, (평년) 1,503원
    * (4월) 896원/kg, (5월) 1,193원, (6월) 1,224원
  - 4~6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평년보다는 10% 많았음.
  - 2/4분기 가격은 전남지역의 겨울 및 봄대파 생산량 증가로 하락하였으며, 5월 중순에는 전남지역 일부 미출하 면적에 대한 시장격리가 이루어졌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노지대파 출하량 감소로 전월보다 7% 높으나, 전년(1,320원)과는 비슷한 1,310원이었음.
  - 3/4분기 출하량은 경기 및 강원지역의 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고온 및 잦은 비로 결주가 많았던 작년보다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가격은 경기, 강원 여름(고랭지)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7~9월 대파 정식의향면적은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남지역의 겨울대파 정식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안, 영광은 출하 초기 가격 상승으로 금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년 대비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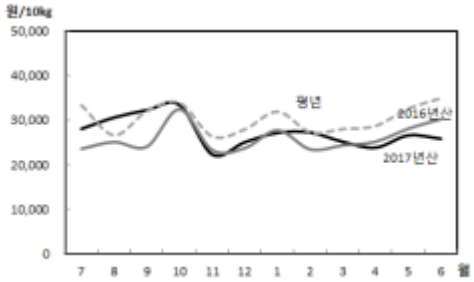
구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3~6월	-1.4	-3.9	-3.7	-1.4	-3.1	-1.8
7~9월	-2.5	-	-0.6	-3.6	-2.4	-3.4

자료: 농업관측본부, 6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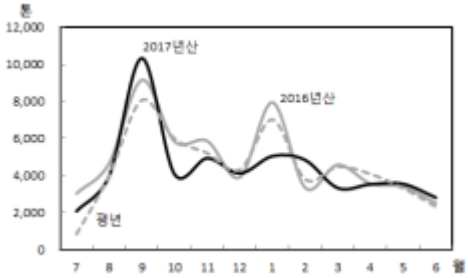
4. 과일[1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2017년산 저장사과인 후지 2/4분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400원으로 전년보다 9% 낮았음. 이는 사과 장기 저장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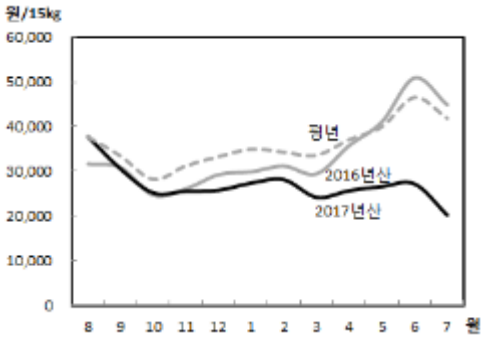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햇사과인 쓰가루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5%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9,300원이었음.
  - 8월 햇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4% 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8월 쓰가루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전망임.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허정회 부연구위원(berliner@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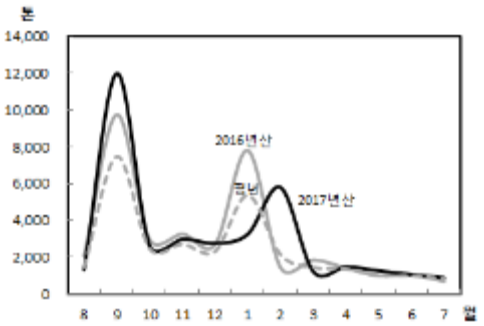
- 2018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46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해거리 및 5월 하순의 낙과 피해와 7월 폭염·가뭄으로 단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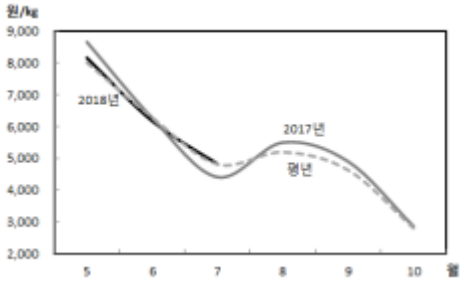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장기 저장량 증가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38%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6천원이었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많고 경도 저하 등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5%, 52%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원이었음.
  - 8월 조생종 원황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9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적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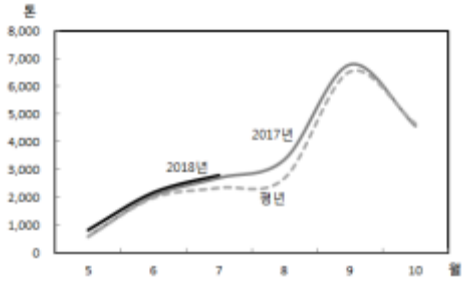
- 2018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1만 1천 톤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한데다, 착과 불량 및 과 비대 저조로 단수가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3~17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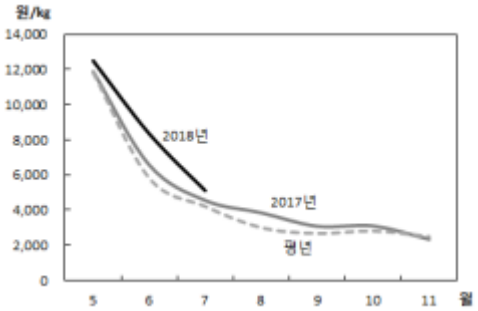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1% 낮은 kg당 6,720원이었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950원)보다 낮은 kg당 4,820원이었음.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고온으로 인한 착색 지연 및 가온 하우스온주 조기 출하 등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하나, 9월 이후 출하량은 무가온 출하 면적 증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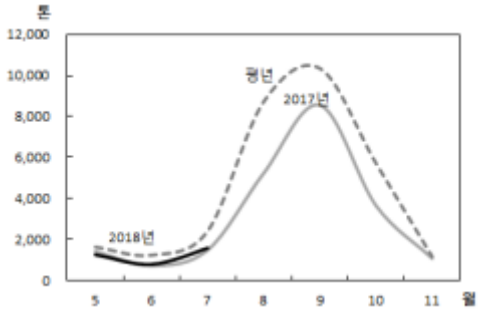
- 2018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44만 5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 감소하였으나, 착과수 증가로 단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3~17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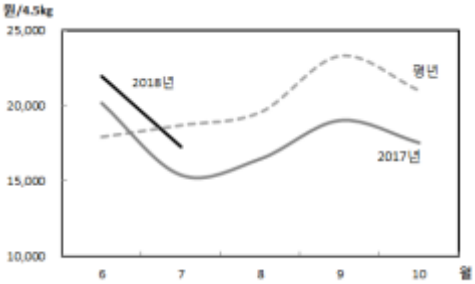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거봉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7% 높았고, 델라웨어도 2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5% 높았음. 이는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포도 출하량이 전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200원으로 전년보다 12% 높았고, 거봉은 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높았음. 이는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8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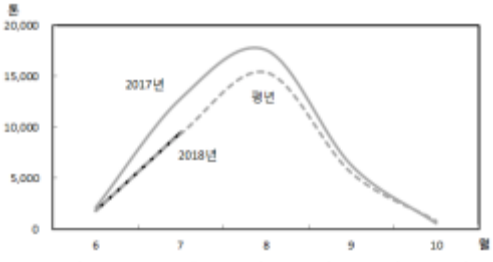
- 2018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한 19만 4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 감소한데다, 동해 및 냉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일소 피해로 단수가 전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3~17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9% 높으나, 평년보다는 23% 상승하였음. 이는 개화기 냉해 등 기상 악화로 단수가 줄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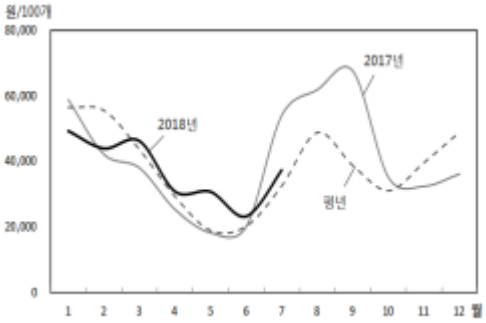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1%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500원이었으며, 백도(유모계)는 전년보다 12% 높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7,300원이었음.
  - 8월 레드골드(천도계)·천중도백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26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개화기 냉해 및 낙과 피해, 7월에 지속된 고온·가뭄의 영향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품종별로는 천도계 생산량이 전년보다 14%, 유모계는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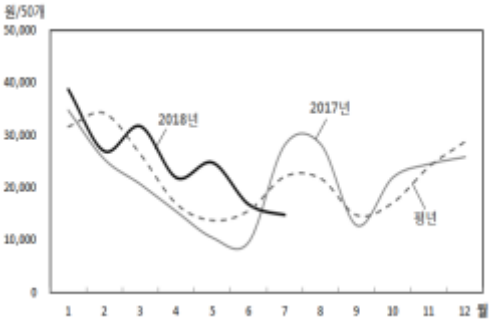
5. 과채[16)]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3만 800원, 5월 3만 700원, 6월 2만 3,2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2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음.
  - 4~5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면적은 증가하였으나, 4~5월 기온 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6월에는 출하면적 감소와 지속적인 기상 악화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2/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전년보다 15%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 2만 1,800원, 5월 2만 4,700원, 6월은 1만 6,8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2만 1,100원이었음.

1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허정회 부연구위원(berlner@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이연옥(superior@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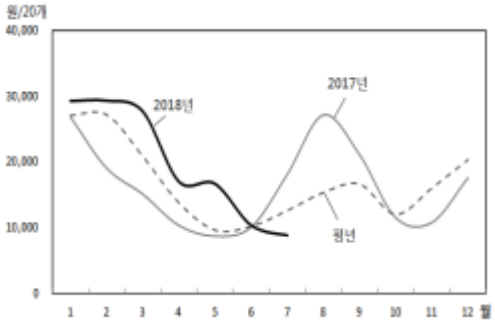
- 취청오이 주출하지인 호남의 재배면적이 품목 및 품종 전환으로 감소하였고 4~6월 기상 악화로 인해 단수도 감소하여 2/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전년보다 26% 감소하였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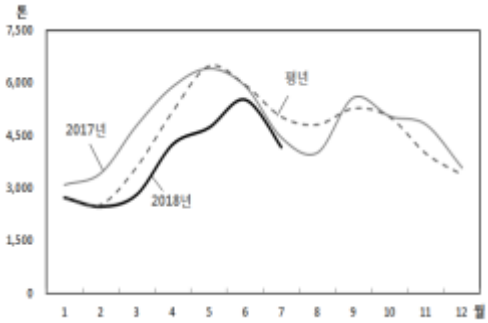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1% 낮은 상품 100개에 3만 7,300원이었음. 이는 주산지인 강원과 충청의 작황이 전년보다 좋아 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8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산지인 강원의 작목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감소하나, 잦은 강우와 폭우 피해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작년보다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8% 낮은 1만 4,800원이었음. 7월 일조량 증가로 중순에 반입량이 증가하였고, 소비 대체관계인 백다다기오이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음.
- 8~9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출하지인 충청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전망임.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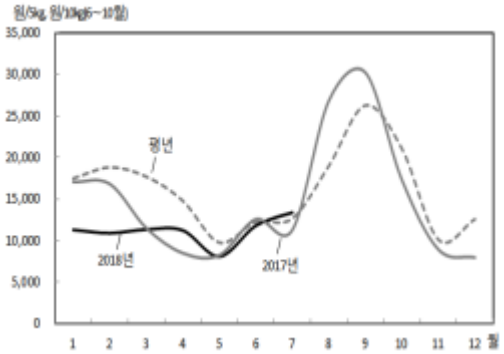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7,000원, 5월 1만 6,700원, 6월에는 1만 3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1% 높은 1만 4,700원이었음.
  - 2/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하였음. 이는 주출하지인 경남 진주에서 바이러스 피해로 출하를 조기 종료하는 농가가 많았고, 4~6월 기상 악화로 단수도 감소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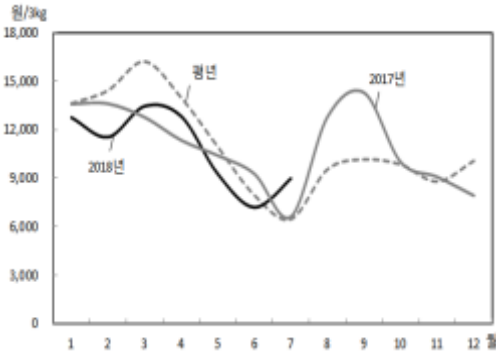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1% 낮은 상품 20개에 8,800원이었음. 이는 7월 일조량 증가로 중순 이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특히 7월 주출하지인 강원 화천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7월 하순에 산지폐기를 시행하였음.
  - 8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출하면적도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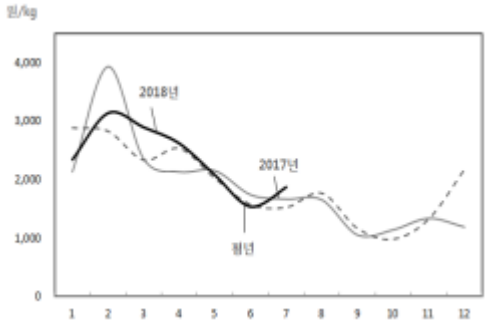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 4~5월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 높은 상품 5kg 상자에 9,600원이었음.
  - 6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1,800원으로 전년보다 6% 낮았음. 기상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품질 저하와 소비 부진으로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일반토마토, 원형 방울토마토와 시설봄배추, 오이 등에서의 작목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16% 낮은 상품 3kg 상자에 9,800원이었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영·호남에서 작황 부진으로 출하 조기 종료가 늘었고, 강원지역에서는 대형유통업체로의 직거래 물량 증가하면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9%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3,4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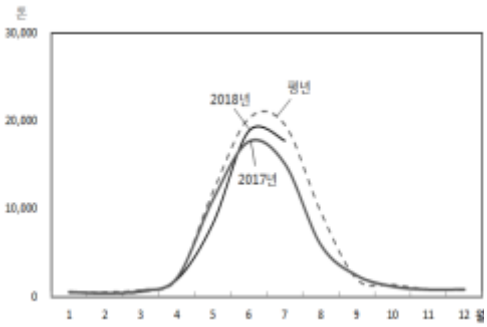
-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 하락한 상품 3kg 상자에 9,000원이었음.
- 8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7월 지속된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한 편이나, 주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기상악화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전년보다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3% 늘 것으로 전망됨. 8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임.
- 9월 일반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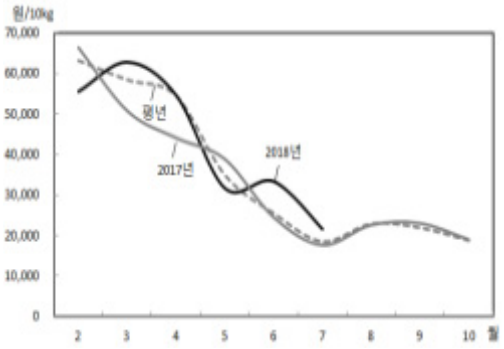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4월 2,620원, 5월 2,080원, 6월 1,54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 높은 2,080원이었음.
  - 수박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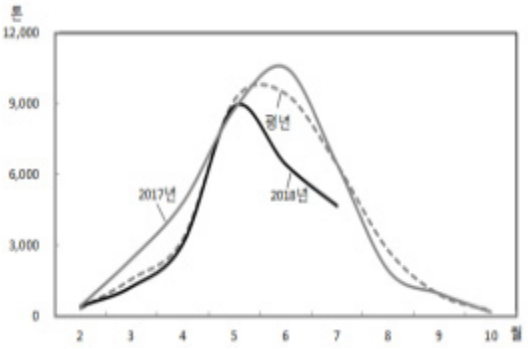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12% 높은 상품 1kg에 1,880원이었음. 7월 고온으로 노지수박의 숙기가 빨라져 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하였으나, 대체 과일류의 가격이 높고 무더위로 수박 소비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음.
  - 8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9월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작년에는 경북 봉화·영주의 우박 피해로 8월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었고, 이후 농가들이 재정식하여 9월 출하량은 증가했었음.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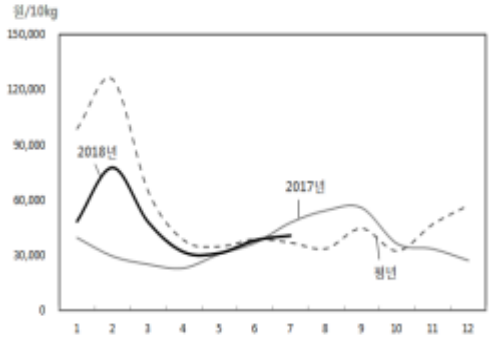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5만 6,400원, 5월 3만 1,700원, 6월 2만 1,5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1% 높은 4만원이었음.
  - 2/4분기 반입량은 봄철 저온,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착과가 불량하고 농가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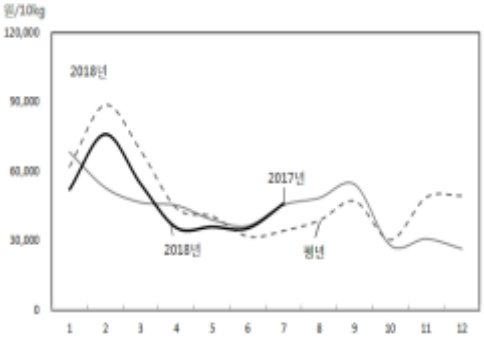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2%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500원이었음. 이는 폭염으로 인한 고사로 전년보다 출하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3/4분기 반입량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출하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3만 1,700원, 5월 3만 1,200원, 6월 3만 8,1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2% 높은 3만 3,700원이었음.
  -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 가격이 낮아 경남지역의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3만 5,500원, 5월 3만 6,000원, 6월 3만 5,3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2% 낮은 3만 5,6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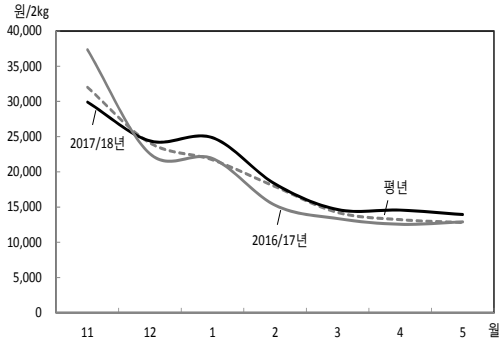
- 일반풋고추 2/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0% 적었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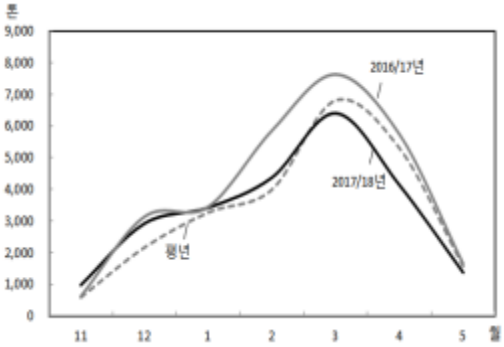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5%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700원이었음. 7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6,000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7월 반입량은 경남에서 전년보다 조기에 출하를 종료 하고, 강원에서 고온으로 인한 착과불량으로 생육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7% 적었음. 일반풋고추는 강원에서 녹광에서 오이맛고추 등으로 품종 전환한 농가가 늘어 반입량이 22% 감소하였음.
- 8~9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의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풋고추는 오이맛고추로 품종 전환되어 감소할 전망임.

5.7.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2/4분기 동향
  - 딸기 2/4분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였음. 겨울철 한파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많았고, 봄철 기상악화로 반입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2019년산 딸기 정식의향면적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유입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8월 딸기 정식의향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며, 9월은 조기 출하를 목적으로 정식시기를 9월로 앞당기려는 농가 의향이 높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17)]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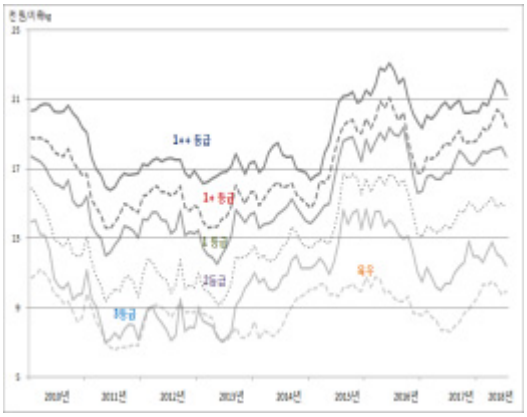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7년				18년	
	3월	6월	6월	12월	3월	6월[p)]
사육 가구수	101	100	100	99	98	97
총 마릿수	2,885	3,034	3,120	3,020	2,947	3,065
가임 암소	1,321	1,337	1,399	1,380	1,345	1,368

주: 2018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년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294만 7천 마리)보다 4.0% 증가한 306만 5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03만 4천 마리보다 1.0% 증가).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292만 5천 마리, 육우 14만 마리
    * 가임암소 마릿수 136만 8천 마리(전년 동월 133만 7천 마리 보다 2.3% 증가)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7,827원/지육kg보다 2.0% 상승한 18,178원임(전년 동기 16,515원보다 10.1% 상승).

1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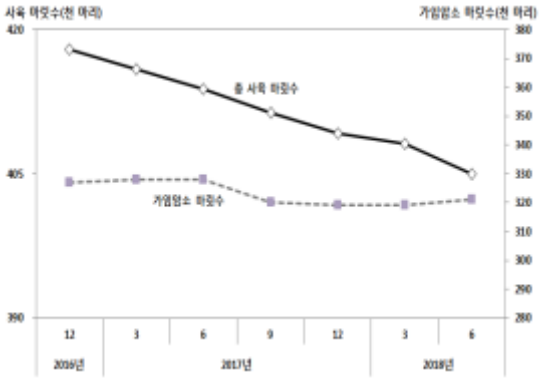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93만 9천 마리)보다 2.0% 증가한 299만 8천 마리로 전망됨.
  -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에도 전년 동월 16,713원보다 5.9% 상승한 17,696원이었음.
  - 8~9월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상승한 17,500~18,5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7년(A)	2018년	2018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293만 9천 마리	6월 292만 5천 마리	9월 299만 8천 마리	2.0%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	7월 17,696원	8월 이후 17,500~18,5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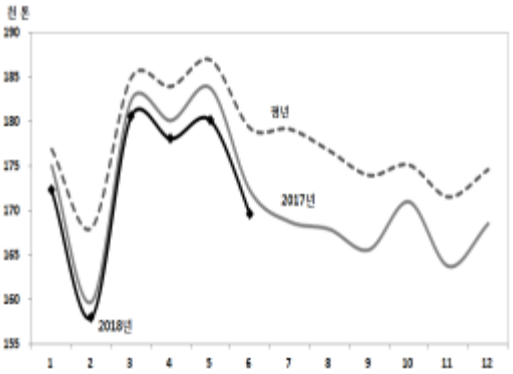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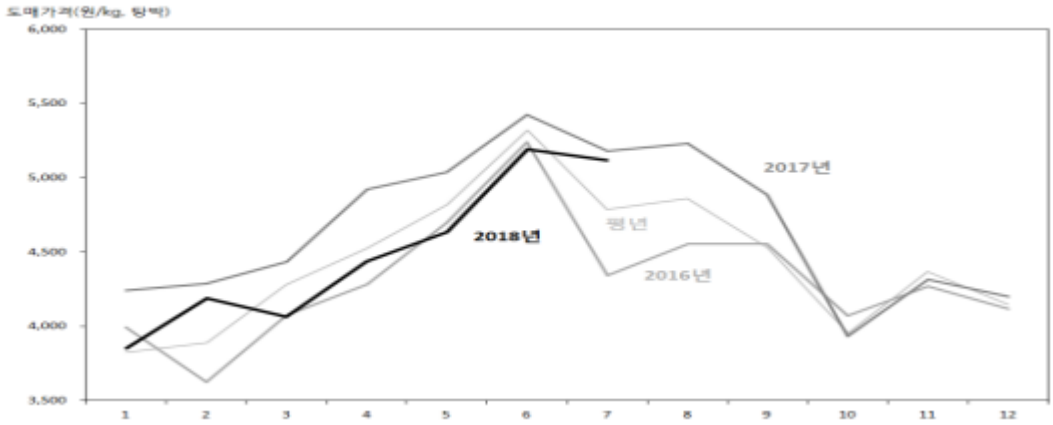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 6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한(전분기 대비 0.8% 감소) 40만 5천 마리였음. 유업체별 원유 감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젖소 총 사육 마릿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
    * 한육우와 젖소는 기존 「가축동향조사」와 「소이력제」 자료 간 소사육두수 차이에 따른 정보이용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2017년 3/4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공동 작성함[18].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52만 8천 톤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폭염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0~1.6% 감소한 49만 4천 톤~49만 7천 톤으로 전망됨.

18) 통계청 「2017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용 참조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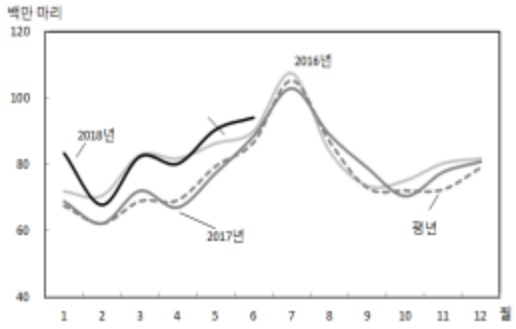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년 2/4분기 동향
  - 2018년 6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한 107만 마리였음. 모돈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0% 증가한 1,130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21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제주도 가격 제외)은 전년(5,126원)보다 7.7%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730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426만 마리로 전망됨.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8년 3/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로 전망됨.
  - 7월 돼지 도매가격은 5,120원이었으며, 8월 4,900~5,200원, 9월 4,200~4,5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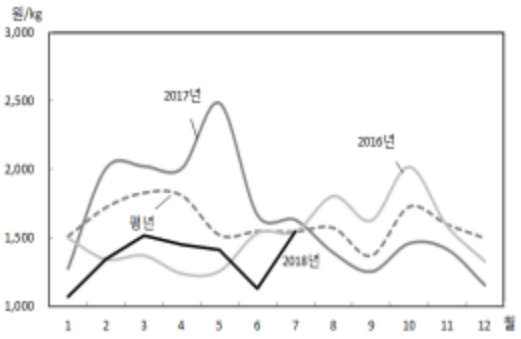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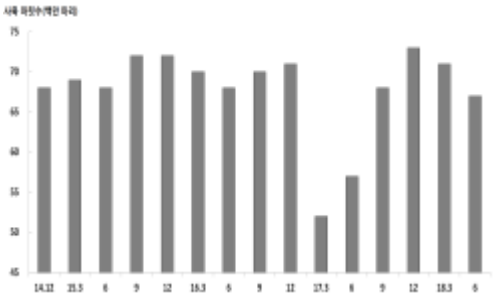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8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육용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1분기 종계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795만 마리로 추정됨.
  - 종계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병아리 생산 증가로 2/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3.7% 증가한 2억 6천 5백만 마리임.
  - 도계 마릿수 증가로 2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2% 하락한 1,331원/kg임.

- 2018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보다 낮으나 종란 재고 증가와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3/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5.8% 많은 수준인 2억 8천 7백만 마리로 예상됨.
  -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증가로 전년 대비 5.2% 하락한 1,546원/kg이었으나, 폭염으로 인한 증체율 저하로 대닭이 부족하여 전분기보다 상승함. 폭염 장기화로 8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9월은 종계 생산성 변화 영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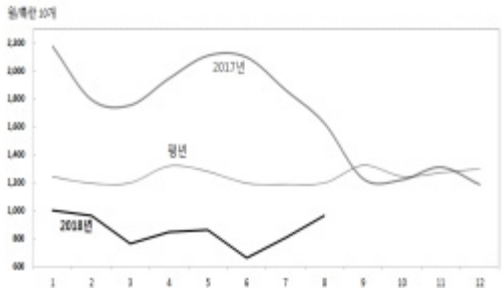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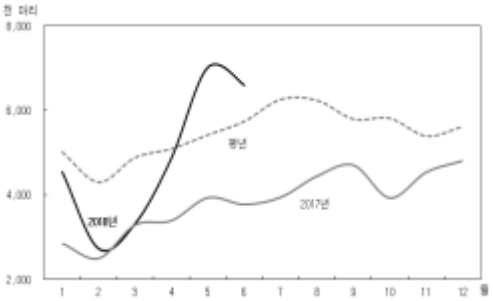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도 HPAI 발생 이후 종계 입식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보다 16.8% 증가한 6,704만 마리임. 그러나 최근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일부 노계 도태가 이루어져 사육 마릿수는 3월보다 감소함.
  - 4~6월 산란 성계 도태는 평년보다 4.2% 증가한 734만 마리였음.
  - 성계 도태에도 불구하고 산란용 닭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한 790원(특란 10개)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계와 신계군 입식 증가로 4~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여름철 폭염 피해로 사육 마릿수 증가폭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계란 생산량 증가로 8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로 전망됨.
    (7월: 804원, 8월: 970~1,100원/특란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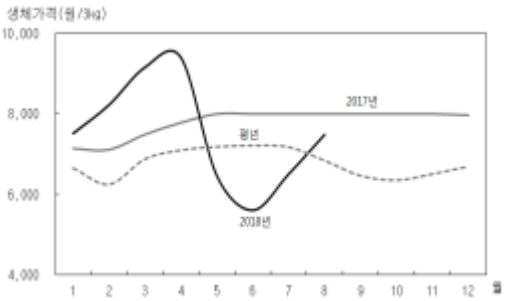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동절기 사육 휴지기제 해제에 따라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늘어 전년 대비 62.4% 증가한 1,049만 마리임.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67.3% 증가한 981만 8천 마리였으며, 종오리는 전년보다 13.6% 증가한 67만 마리임.
  - 2/4분기 도압 마릿수는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1,848만 마리임.
  - 도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오리고기 재고량 및 생산량이 부족하여 4~6월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7.5% 상승한 8,341원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6~8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74.8% 증가한 3만 1,073톤으로 전망됨.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7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18.7% 하락한 6,506원임. 8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7,500~8,000원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19)]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7	71.8
	101~300㎡ 이하	64	19.4
	300㎡ 초과	29	8.8
직원수	1~3명 이하	248	75.2
	4~5명 이하	42	12.7
	6명 이상	40	12.1

1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신유선(shinys@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2 이하인 업소가 71.8%로 가장 많고, 101~300m^2 이하 19.4%, 300m^2 초과 8.8%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5.2%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18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74(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70)와 전분기(2.65)에 비해서 상승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7년 2/4분기	2018년 1/4분기	2018년 2/4분기
2.70	2.65	2.74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3/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96.4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18년 2/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하였고, 전분기보다 0.9% 감소함.
  - 감자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하였고, 전분기보다 2.1% 증가함.

곡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6	-8.4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곡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콩은 국내산 비중이 75.0%, 미국산이 6.3%이고, 감자는 국내산 비중이 100.0%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3/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2/4분기)에 비해 각각 3.2%, 9.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3.2	-9.7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18년 2/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0.2%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8~14.0% 감소하고, 건고추를 제외한 양념채소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4.8~12.2%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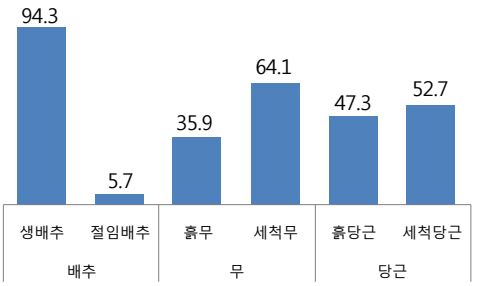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4.0	건고추	35.4
배추김치	−3.8	고춧가루	−4.8
무	−13.3	마늘	−12.0
당근	−5.5	양파	−12.2
양배추	−8.4	대파	−5.7
소계	−6.4	소계	−0.2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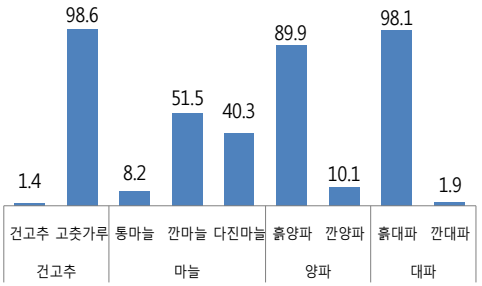
단위: %

〈엽근채소〉



단위: %

〈양념채소〉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배추(94.3%), 양파(89.9%), 대파(98.1%)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2/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와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0.9%), 깐양파(60.0%), 고춧가루(38.4%), 깐마늘(36.2%), 다진마늘과 당근(3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양배추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 구매율이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7년 2/4분기		2018년 2/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7.9	2.1	98.3	1.7
	배추	98.1	1.9	98.2	1.8
	배추김치	19.4	80.6	19.1	80.9
	당근	64.7	35.3	65.0	35.0
	양배추	96.4	3.6	97.7	2.3
양념채소	건고추	90.6	9.4	69.4	25.0
	고춧가루	61.5	38.5	61.6	38.4
	통마늘	62.1	37.9	84.4	15.6
	깐마늘	–	–	63.8	36.2
	다진마늘	–	–	65.0	35.0
	흙양파	81.4	18.6	85.8	14.2
	깐양파	–	–	40.0	60.0
	대파	99.2	0.8	100.0	0.0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18년 2/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4.5%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1.5%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 사용 시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32.3%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 사용 시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1.6%로 조사되었음.

● 2018년 3/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2.8~17.8% 감소하고, 건고추를 제외한 양념채소 구매량은 6.0~1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7.8	건고추	8.5
배추김치	−4.0	고춧가루	−8.7
무	−8.1	마늘	−11.5
당근	−2.8	양파	−9.1
양배추	−11.3	대파	−6.0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18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 풋고추와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8%, 8.8% 감소하였고, 오이는 6.5%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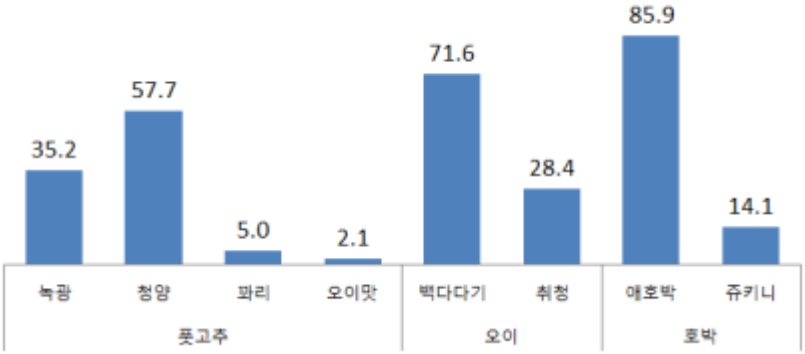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7.8	6.5	-8.8	-1.0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5.2%), 꽈리고추(5.0%), 오이맛고추(2.1%)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보다는 백다다기오이(71.6%)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보다는 애호박(85.9%)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3/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2/4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풋고추, 오이, 애호박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7.5%, 0.9%, 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7.5	−0.9	−10.7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18년 2/4분기 오리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 쇠고기와 오리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2%, 26.7%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4.0%, 11.4%, 6.1% 감소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3.2	−4.0	−11.4	26.7	−6.1	−1.7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0.4%p 증가한 반면, 국내산 구입 비중은 2.9%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2.8%로 전년 동기보다 2.2%p 증가한 반면, 미국산과 캐나다산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5%p, 0.3%p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4.5%, 89.2%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음.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7년 2/4분기					2018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4.8		69.2		15.9	11.9		69.6		18.5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0.6	11.0	6.3	9.0	2.5	72.8	7.5	6.0	10.0	2.4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8.8		6.6		3.6	84.5		8.2		6.2
오리고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89.2		7.7			89.2		7.7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3/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2.5~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오리고기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여름철 복 수요로 인해 전분기보다 6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12.3	−2.5	−5.2	68.6	−5.2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68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6.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7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6.4%, 0.2% 감소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1.0%, 1.7% 감소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마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쇠고기와 닭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는 증가함.
- 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 업체의 34.8%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이 24.5%,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어려움이 17.3%,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 12.7%로 조사됨.
- 식사 후 후식과일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로 낮았으며, 후식과일로는 수박·참외, 배, 오렌지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고추를 제외한 채소류와 과채류는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하고, 축산도 오리고기를 제외하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특별주제

❶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❷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황윤재**, 변승연***

1. 조사 개요

- 국민 식생활 실태와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국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2009년부터 매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가 실시됨. 2017년에 실시된 조사는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청소년은 초등학생 60명(4학년-6학년), 중학생 70명, 고등학생 60명을 조사함.
  - 2009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성인 1,000~1,200명을 조사하였으며, 청소년 조사는 2015년에 130명, 2017년에 200명 규모로 각각 실시됨.
- 주요 조사 내용은 국민 식생활 실태와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 추진 실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식생활 및 식생활 교육 실태와 관련된 일부 결과만을 정리함.
  - 2017년 실태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함.

---

* 본고는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요약 ·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yjhw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seungyeon@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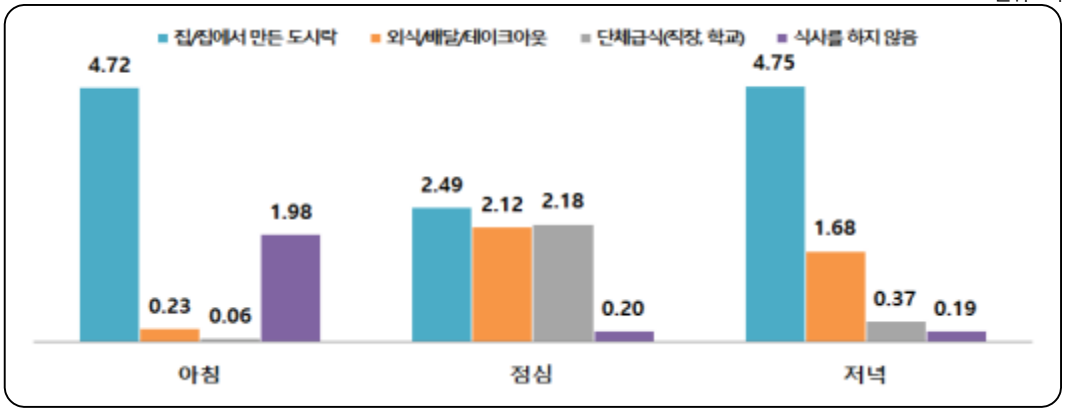
2. 식생활 및 식습관 실태

2.1. 식사 현황

- 성인과 청소년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주로 집에서 먹는 반면, 점심식사는 성인은 집에서 먹거나 외식 또는 급식 등 다양한 형태로 먹는데 비해, 청소년은 주로 급식으로 먹고 있음. 한편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횟수는 성인과 청소년은 모두 대체로 아침이 높은 편이며,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점심과 저녁, 청소년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은 1.98회, 점심 0.2회, 저녁은 0.19회를 거르며, 청소년은 아침 2.05회, 점심 0.05회, 저녁은 0.11회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인과 청소년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주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먹고 싶지 않아서'이며, 저녁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먹고 싶지 않아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임.

성인의 지난 일주일간 식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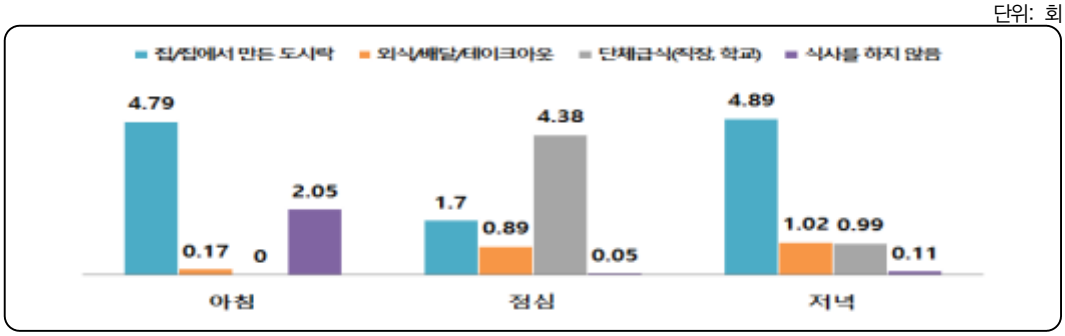
단위: 회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90)

청소년의 지난 일주일간 식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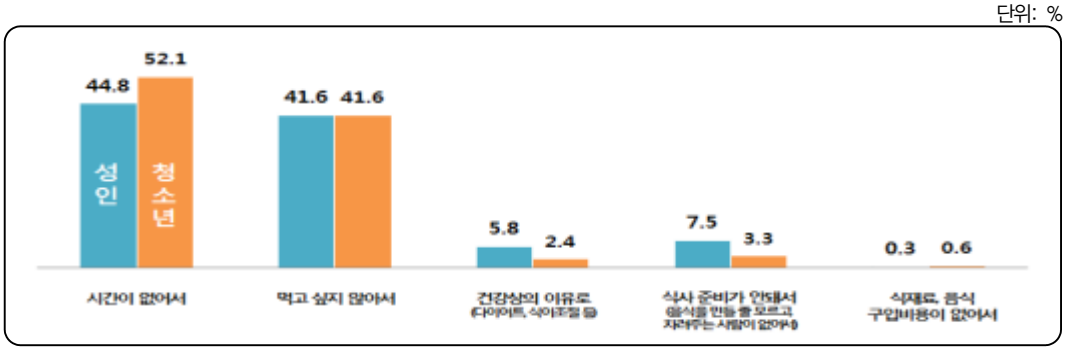
단위: 회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91)

성인·청소년의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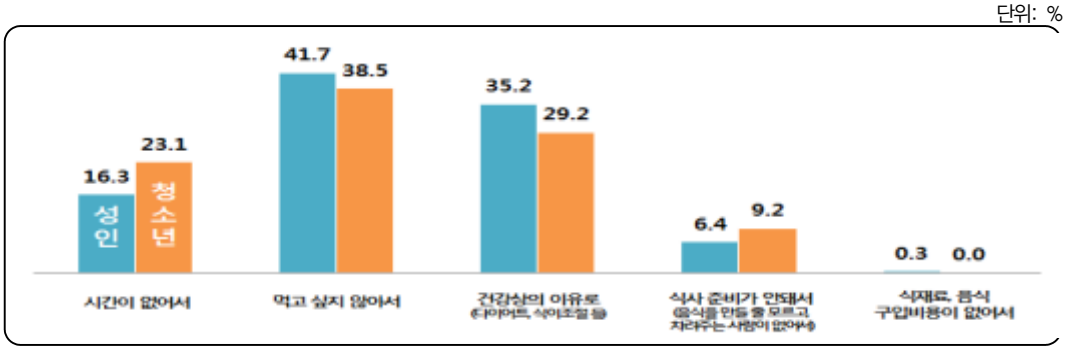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98)

성인·청소년의 저녁식사를 거르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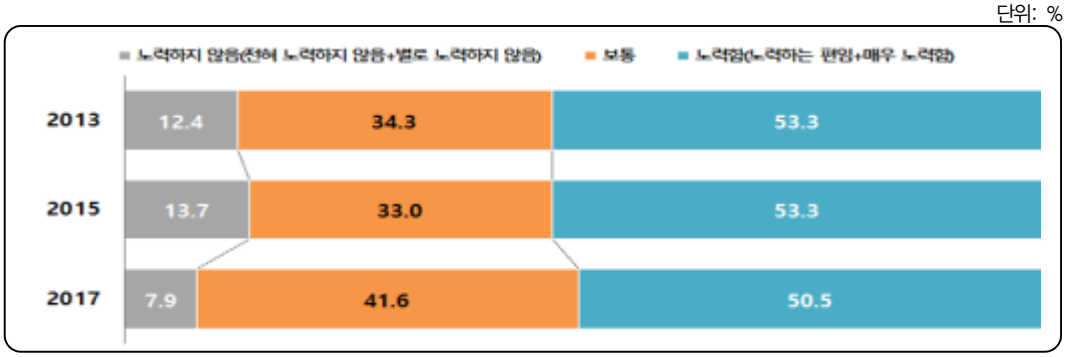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00)

2.2. 식생활 개선 노력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성인 비중은 연도별로 일정한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은 대체로 절반 정도(50.5%)가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해 식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은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이 2015년 31.5%이며, 2017년에는 7%p 감소한 24.5%임*.

성인 생활습관병 예방 식생활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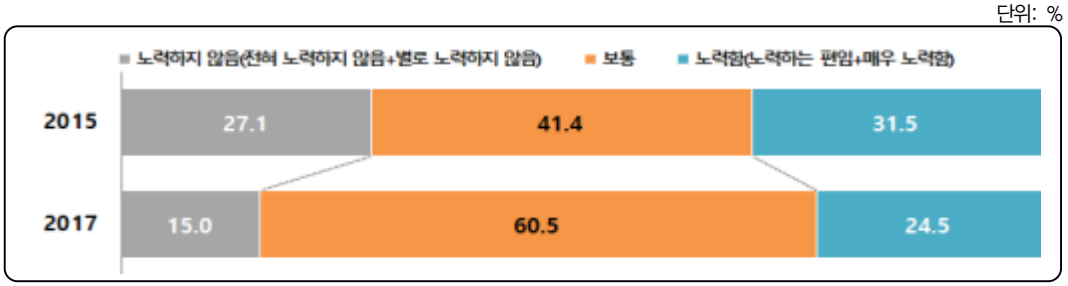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13)

청소년 생활습관병 예방 식생활 개선 노력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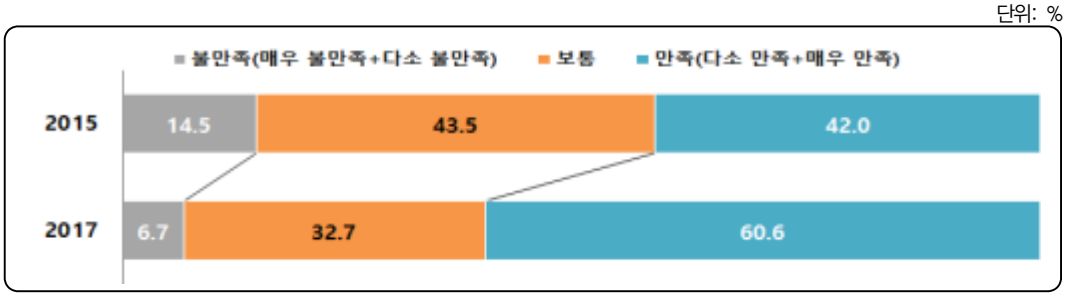
* 2017년 조사 결과는 전국단위 개별면접조사, 2015년 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한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3. 식생활 만족도

- 청소년에 비해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가 2015년 대비 2017년에 증가한 반면,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는 감소함.
  -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는 2017년 60.6%, 청소년은 51%임.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약 18.6%p가 증가한 반면,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는 7.6%p가 감소함.
  -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연령대별로 초등학생(65.7%)의 식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학생(12.9%)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인 식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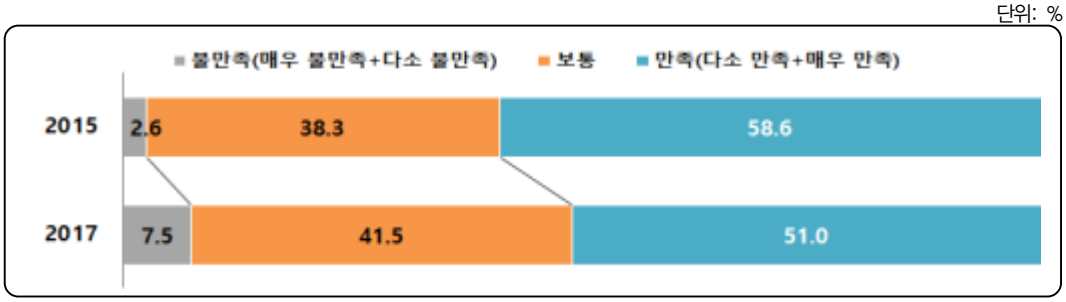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46)

청소년 식생활 만족도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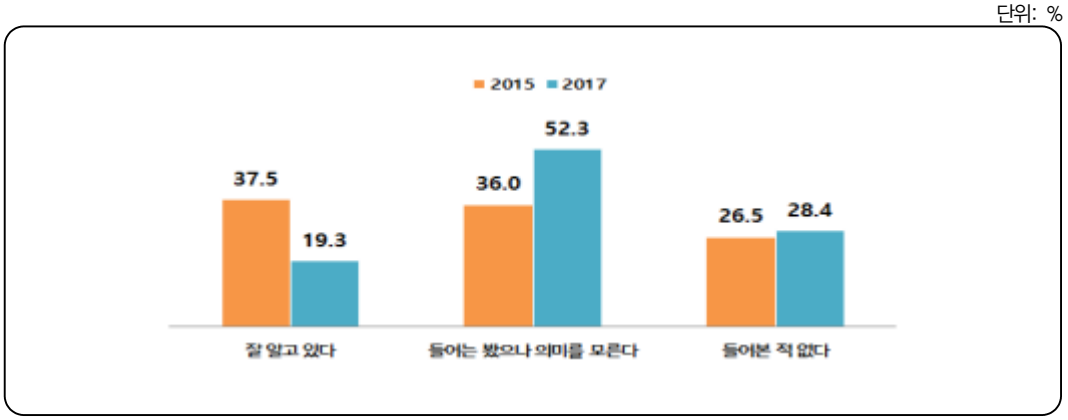
3. 식생활교육 및 체험에 대한 인식

3.1.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시작됨.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식생활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 비율은 2017년에 성인 71.6%로 2015년의 73.5%와 유사한 수준이며, 청소년은 2017년 65.5%로 2015년의 81.4%에 비해 15.9%p 감소함.
-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성인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반면,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식생활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2017년 51.8%인데 비해, 청소년의 비중은 37.5%에 불과함. 그러나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대비 2017년에 21.3%p가 증가함.

성인 식생활교육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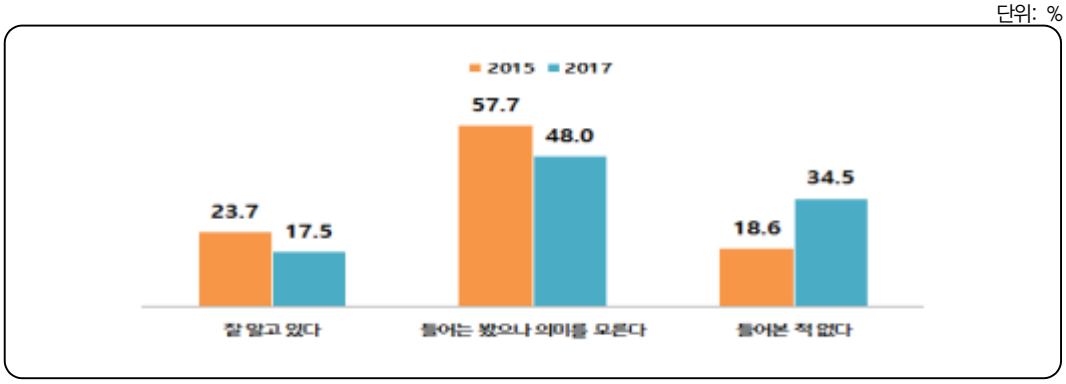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2)

청소년 식생활교육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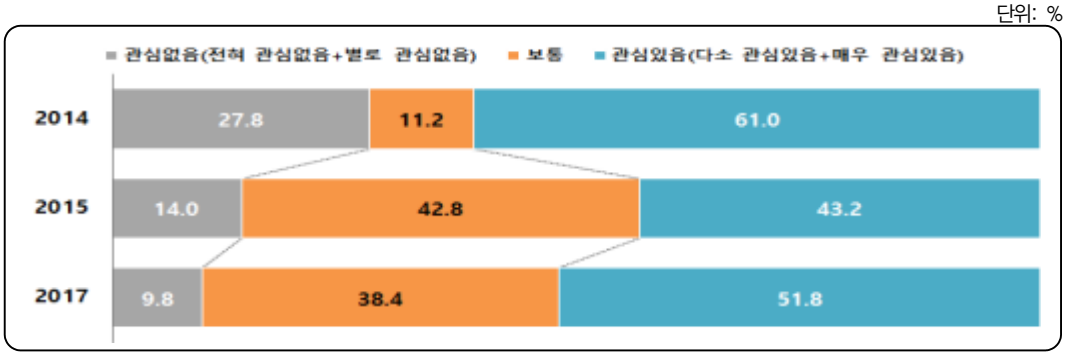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3)

성인 식생활교육 관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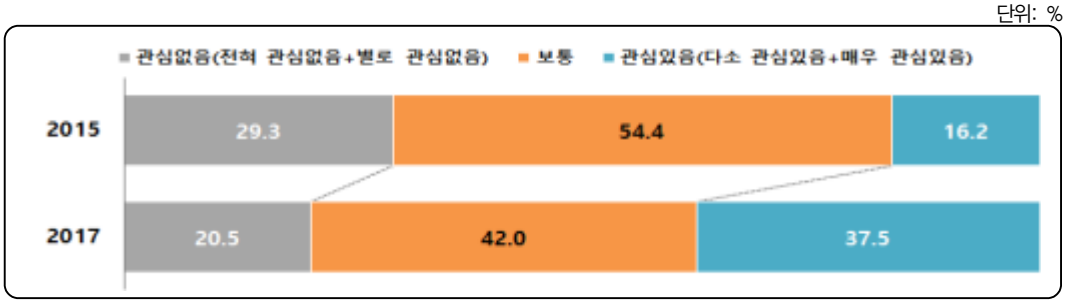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6)

청소년 식생활교육 관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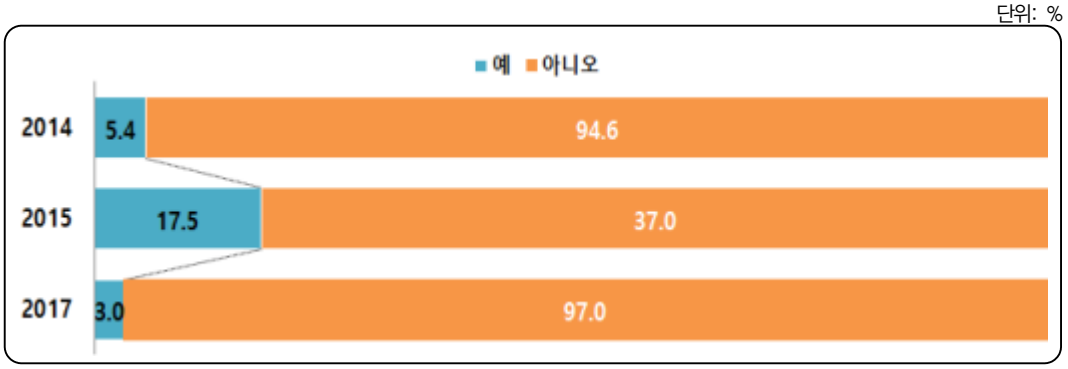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6)

3.2. 식생활교육 체험 실태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성인의 경우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거의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2017년에 3%에 불과하며, 청소년은 29.0%에 불과함.

성인 식생활교육 관련 교육 및 체험 참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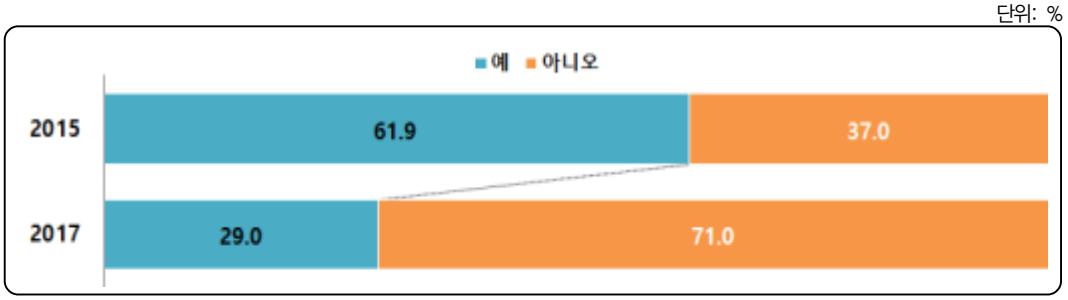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07)

청소년 식생활교육 관련 교육 및 체험 참가 경험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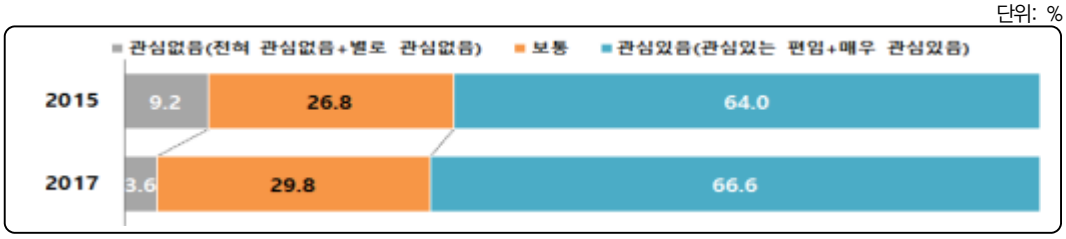
4. 농업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인식

4.1. 농업·농산물에 대한 인식

-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청소년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은 2017년에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농산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비중이 66.6%로 2015년에 비해 2.6%정도 증가함.
  - 청소년의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은 2015년에 비해 3.2%가 증가는 하였으나, 30.5%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높지 않은 편임.

성인의 음식 식재료 국산(지역산) 농산물 여부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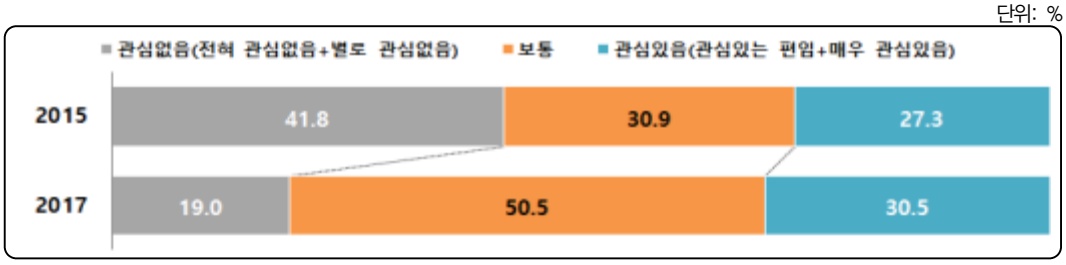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0)

청소년의 음식 식재료 국산(지역산) 농산물 여부에 대한 관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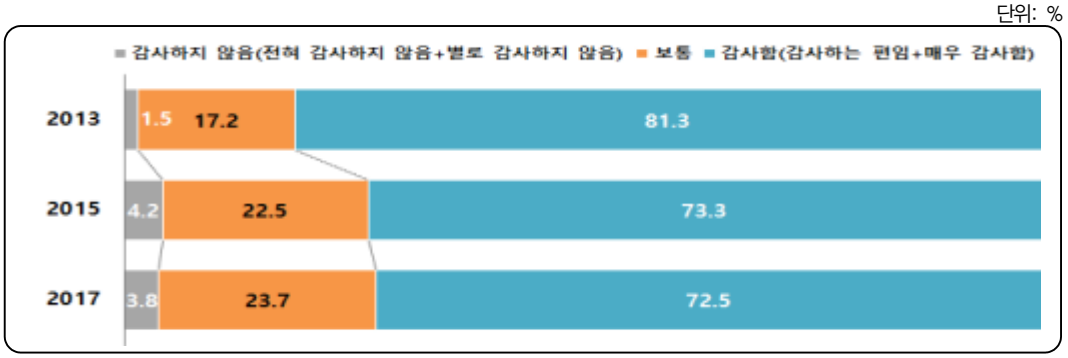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0)

-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성인은 생산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비중이 2015년과 2017년에 72% 내외 수준이며, 청소년은 2015년 63.8%, 2017년은 56% 수준으로, 성인과 청소년 간에 10~15%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먹거리 생산자 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인은 2017년 65.0%로 2015년에 비해 12.3%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은 2015년과 2017년에 약 30% 수준임.

성인의 생산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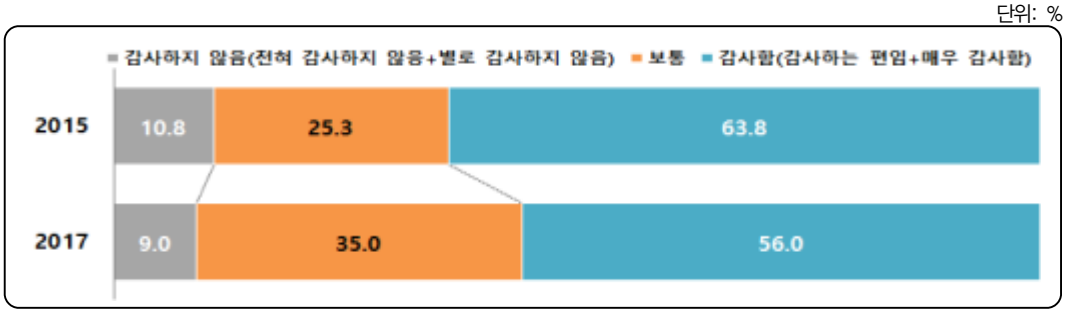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2)

청소년의 생산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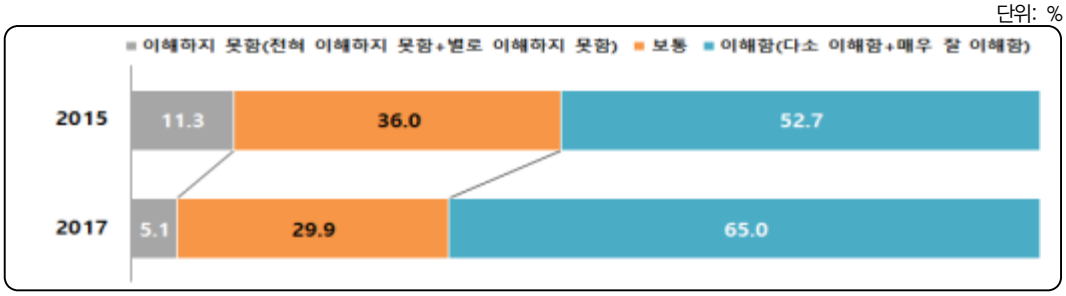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2)

성인의 먹거리 생산과정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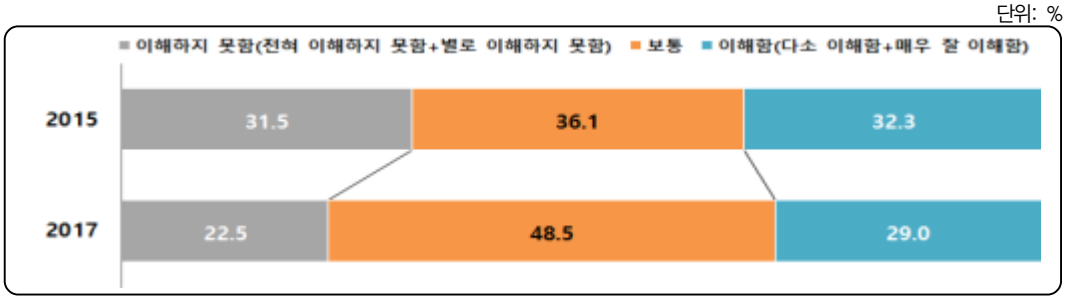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88)

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이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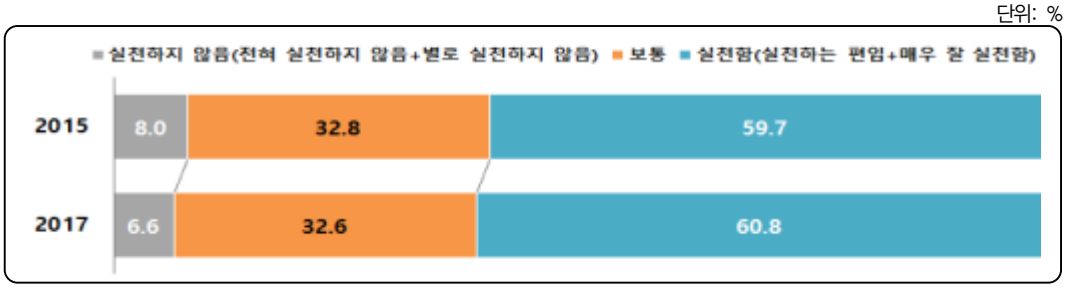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88)

4.2. 전통 식생활 실천과 체험

-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의 약 60%가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하는데 비해 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 비율은 38.5%에 불과함.
  -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4-5일'인 비중이 성인은 38.4%, 청소년은 48.0%임.

성인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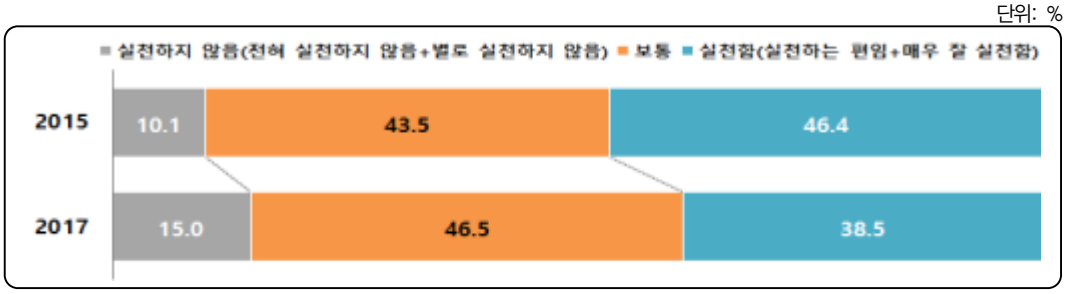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4)

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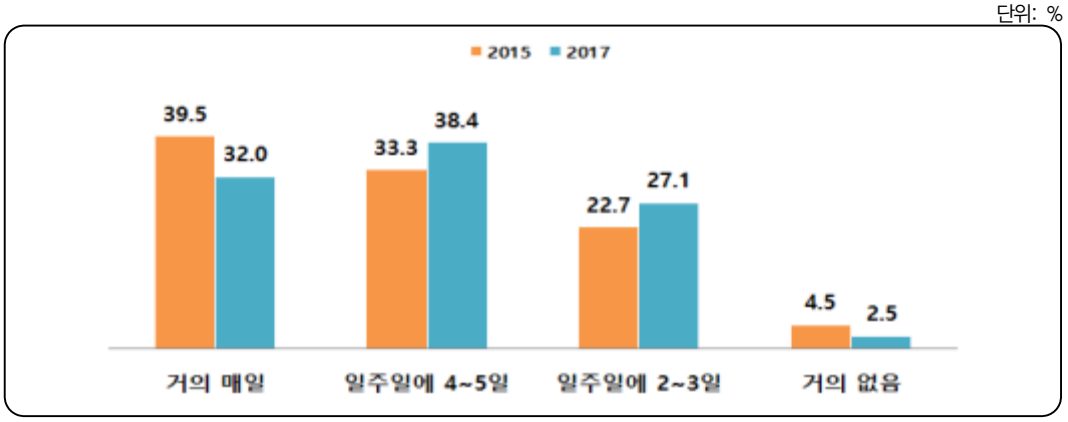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4)

성인의 일주일 중 한국형 식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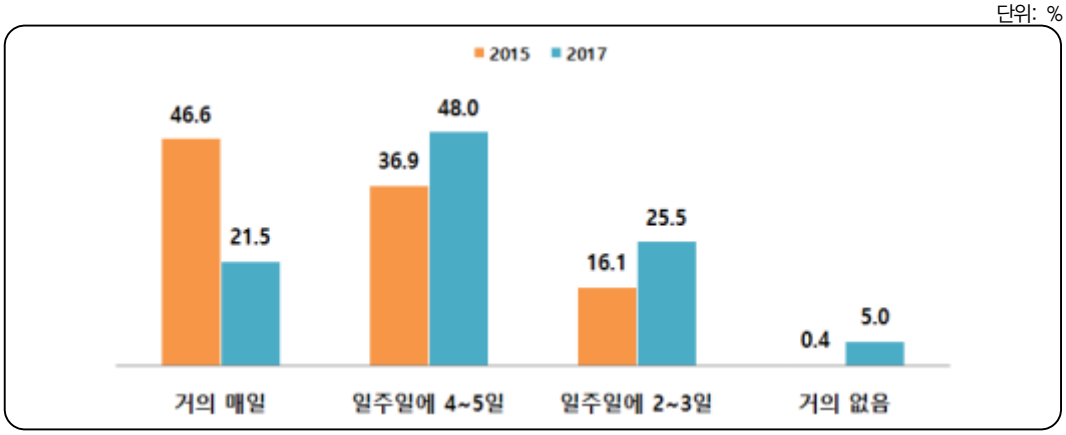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6)

청소년의 일주일 중 한국형 식단 식사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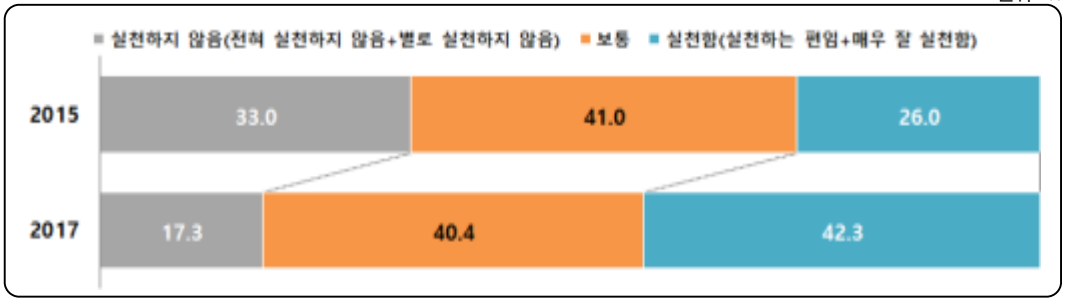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27)

-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해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의 경우 2017년에 2015년 대비 16.3%p가 증가한 42.3%가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은 2015년 대비 2017년에 4.5%p가 증가한 25.5%만이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 실 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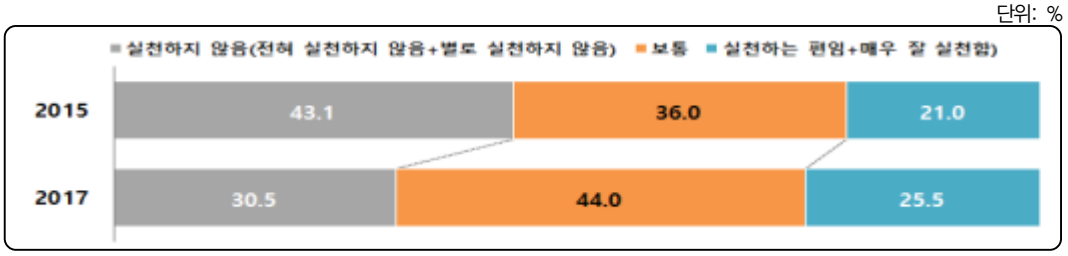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0)

청소년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 실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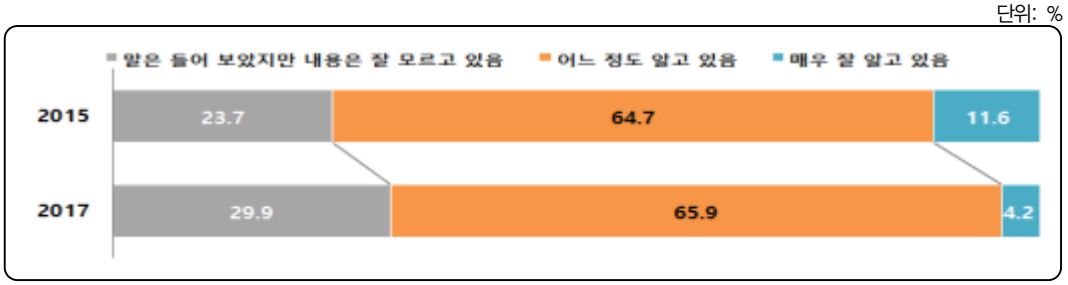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30)

4.3. 지역 먹거리에 관한 관심

-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의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성인의 70.1%, 청소년은 51.6%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2015년에 비해 성인은 6.2%p, 청소년은 29.7%p가 감소한 결과임.
  -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40.9%인데 비해 청소년은 성인의 절반 수준인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성인 푸드 마일리지 의미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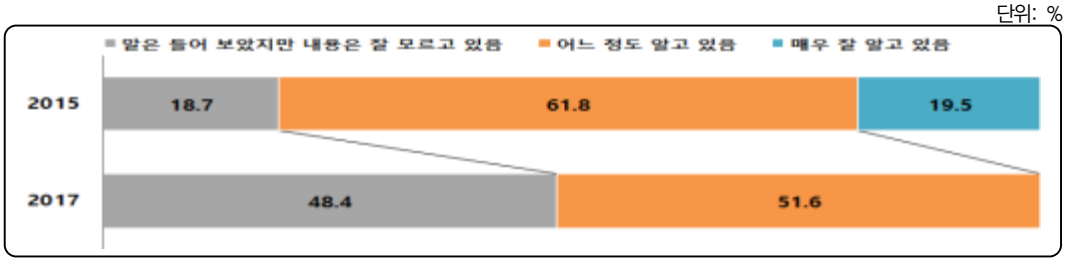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98)

청소년 푸드 마일리지 의미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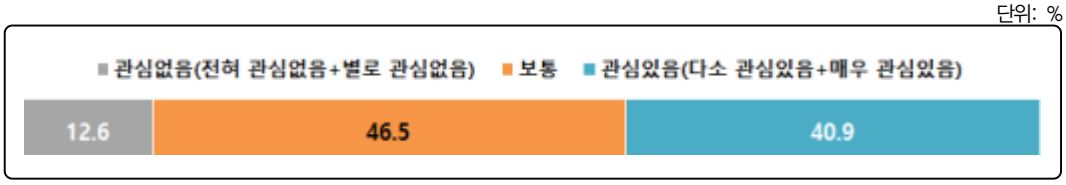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199)

성인 푸드 마일리지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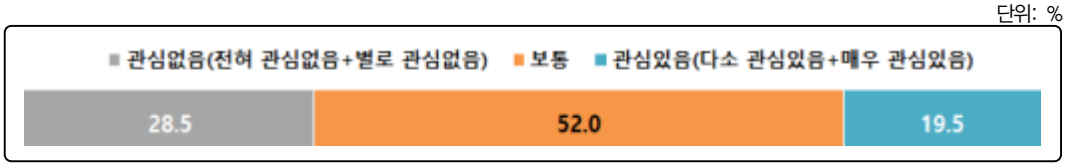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0)

청소년 푸드 마일리지 관심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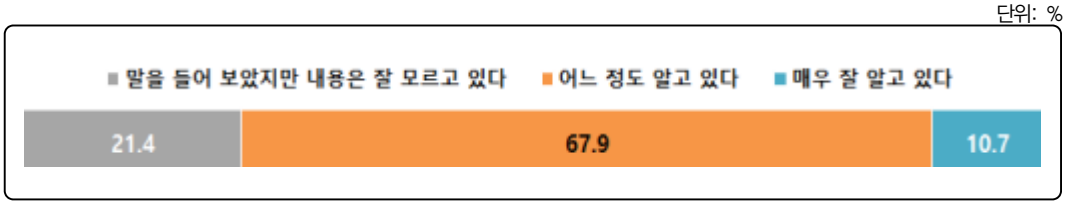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0)

-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로컬푸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성인의 비중이 2017년에 78.6%인 반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23.1%p가 적은 55.5%인 것으로 나타남.
  - 로컬푸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성인은 50.5%이며, 청소년은 24.5%로 성인에 비해 관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성인 로컬푸드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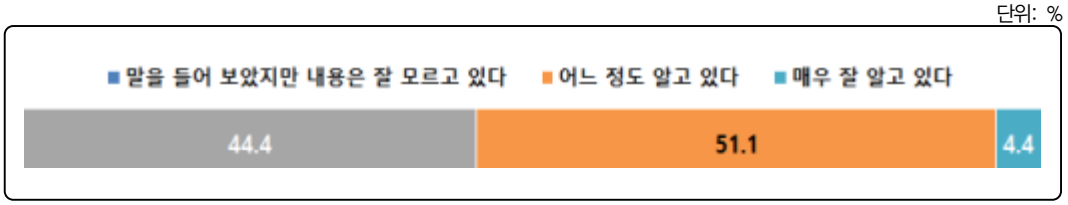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4)

청소년 로컬푸드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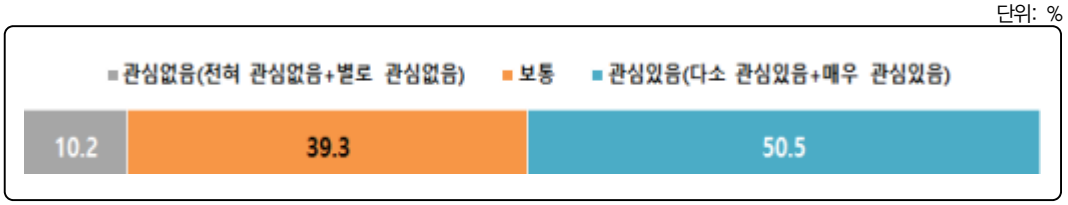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4)

성인 로컬푸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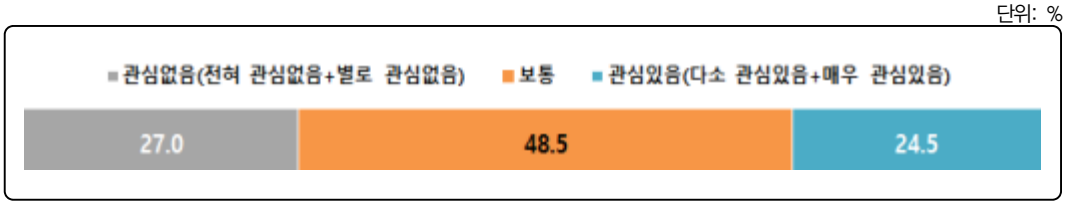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6)

청소년 로컬푸드 관심 정도

단위: %



자료: 황윤재·변승연,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206)

5. 시사점

- 2017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시간 부족 또는 먹고 싶지 않아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생활습관병 등의 예방을 위해 식생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식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어린이·청소년에 형성된 식생활·식습관이 전 생애에 유지되며,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70% 내외로 비교적 높은 반면,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참가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은 우리 농업·농산물과 지역 먹거리 관련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농산물 여부에 대한 관심이 30.5%에 불과하며, 푸드 마일리지, 로컬푸드 등 지역 먹거리 관련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각각 19.5%, 24.5%로 조사됨. 이밖에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수준도 29.0%로 낮은 편이며,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 및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 실천율이 청소년이 각각 38.5%, 25.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영양·건강, 식습관 관련한 식생활교육 이외에도 우리 농업 및 농산물, 전통 식문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식생활교육 및 관련 체험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정은미**

1. 지역 푸드플랜[1]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중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명시함.
  -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됨.

1.1. 중소농 대책

- 우리나라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 중 20% 미만에 불과하고, 생산성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농, 고령농 등의 농가는 낮은 농업소득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있음[2].
  -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일작목, 규모화, 기계와 시설 이용 대량생산의 전업농,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실시함.

---

* 본고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연구를 참고하여 요약 ·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eongem@krei.re.kr)

1) 푸드플랜은 정책명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원어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먹거리 종합 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 '계획'이 더 적합할 경우에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사용할 예정임.(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T/F 2018년 8월 7일 자료).

2) 2015년 농어업총조사에서 전국 1,089천 농가 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17.5%에 불과함. 농산물 판매금액은 경영비를 제외하지 않은 농업조수입을 말함.

- 그러나 규모화 전업농일지라도 후계자가 없는 경우,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경영규모를 줄이며 소량 다품목의 중소농 경영으로 회귀함.
- 농업 구조개선 정책은 소수의 전업농 육성에 그쳤을 뿐 농업인구의 고령화, 재배품목 편중, 경지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농업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됨.

●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 정책은 줄곧 소비지 변화에 대응하는 산지 공급체계의 재편이고 산지 조직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강화를 강조함. 그러나 현재까지도 산지 조직화는 미완의 과제임.

- 안정적으로 확보된 판매처가 있더라도 산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중소농 일수록 조직화에 약하고 지속성이 낮음.
- 생산량과 가격 변동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지만 농협조차 경영위험을 기피하므로 경제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함. 결국 생산량과 가격의 위험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이고 산지 조직화는 일부 전업농에 국한됨.
- 상품 정보가 집약된 '브랜드'는 소비자와 관계 마케팅에서 신뢰의 매개체이고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농산물 품질관리 미흡으로 제대로 된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려움.

● 중소농은 농업인구의 80% 이상이며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됨.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농촌지역 유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대책임.
- 중소농은 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1.2. 도농상생의 직거래

● 농산물 직거래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 유통에 불만인 생산자와 실수요자, 소비자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산물 거래의 주체가 됨.

- 생산자는 시장가격이 생산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에 참여함. 또한 도매시장이 발달하고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소규모 생산자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며 소량 생산물을 판매할 판로조차 찾기 어려움.
-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을 선호하며 직거래가 증가함.

● 우리나라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으로 생산자가 주도했으나 1990년 이후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농상생의 관계로 발전함.
- 초기에는 생산자 주도의 농산물 직거래가 꾸준히 시도되었으나 농산물이 갖는 물류 특성과 소량유통의 한계[3]로 생산자 주도의 직거래는 거의 실패함.
- 1980~90년대 친환경농업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직거래를 선택함. 생산자는 소비자가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각종 교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의 관계임을 주지시킴.
-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의 주체는 생협으로 전환됨. 생협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생산자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산계약, 선급금 지급, 생산 및 가격안정 기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

● 생협운동을 거치며 농산물 직거래는 도농상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확산됨.
- 특히 중소농이 생산하는 소량 다품목이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 꾸러미, 직거래 장터 등에서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의 개성 있는 상품으로 등장하며 중소농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됨.

1.3.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 완주군은 2008년 지역농정 혁신 중장기 플랜인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지역농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함.
- 로컬푸드는 농업농촌 발전전략 중 유통 세부시책이지만, 지역자원 순환시스템, 맞춤형 컨설팅, 도농교류, 농외소득 증대 등이 연계되어야 실현가능함.

3)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과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 점차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취급하지만 소량 다품목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경영악화의 원인이 됨. 소량 다품목 거래에 생산자가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움.

– 로컬푸드 추진을 위해 ①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현장지원 및 역량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및 로컬푸드, 유통회사 등 유통업무 전담하고, ②소량 다품목 농산물의 출하지원을 위해 순회수집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지원함.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정책

분야	정책목표		
생산혁신	• 생산비 절감	• 친환경 전환	• 지역자원 순환시스템
유통혁신	• 전방위적 로컬푸드 실현	• 지역농산물 통합 마케팅 시스템	
경영회생	• 기금의 조성	• 부채농가지원책	• 맞춤형 컨설팅
활력증진	• 마을경쟁력 강화	• 도농교류확대	• 농외소득 증대
복지증진	• 현장중심형 복지프로그램	• 종합DB구축	• 맞춤서비스

자료: 완주군. 2009.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 로컬푸드 추진을 위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
  - HACCP 요건을 갖춘 전 처리 가공 기반시설인 '농민거점가공센터'
  - 로컬푸드 수요 및 식자재공급실태를 조사 후 시장개척(꾸러미 사업)
  - 로컬푸드 급식의 연중 공급을 위해 생산 기반을 지원 및 출하조직 육성
  - 2012년 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로컬푸드 전담 민간조직) 설립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의의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농업의 생산, 유통, 복지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 활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완주군은 지금까지 농정의 대상에서 소외된 중소농을 중심으로, 이들이 가공과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소농의 조직화, 기획생산을 지원함. 또한 이들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센터 운영, 가공활성화를 위한 농민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함.
  -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는 로컬푸드가 농산물유통 문제 해결이나 중소농의 소득증대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지역민 중심으로 지역농업이 조직되고 연계되도록 재조정하는 지역개발사업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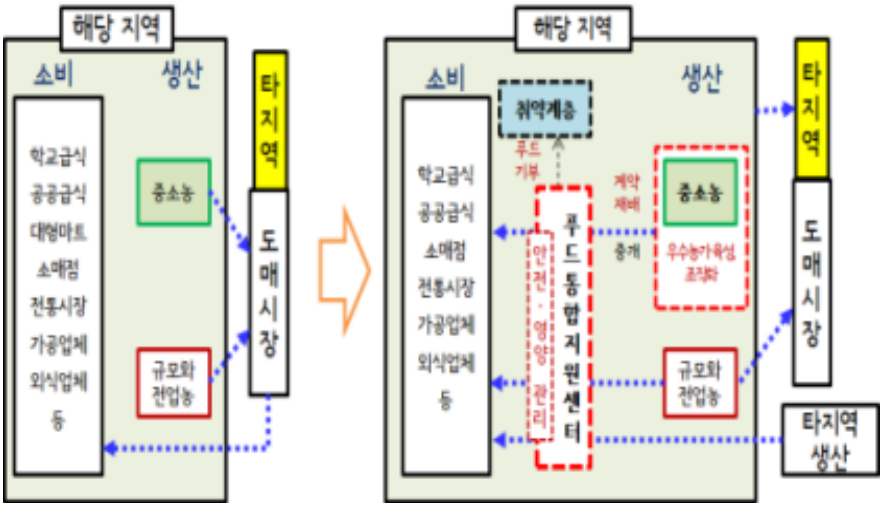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본 방향

-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 우선 지역 내 먹거리에 관계하는 다수의 주체가 먹거리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함. 특히 지역농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 즉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일이 지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임.
  -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이후, 지역 내에서 먹거리 사업의 주체 간에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은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
-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은 각각의 분산 매뉴얼로 진행되며 농산물 유통의 틈새시장이라는 경제성 충족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취급됨.
  - 그러나 완주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먹거리 사업은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 가능), 소규모 가공 등 6차 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식교육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농식품의 생산~소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 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 민관 거버넌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내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함.
  - 또한 로컬푸드를 실현하기 위해 먹거리 관련 사업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함. 이들 다양한 주체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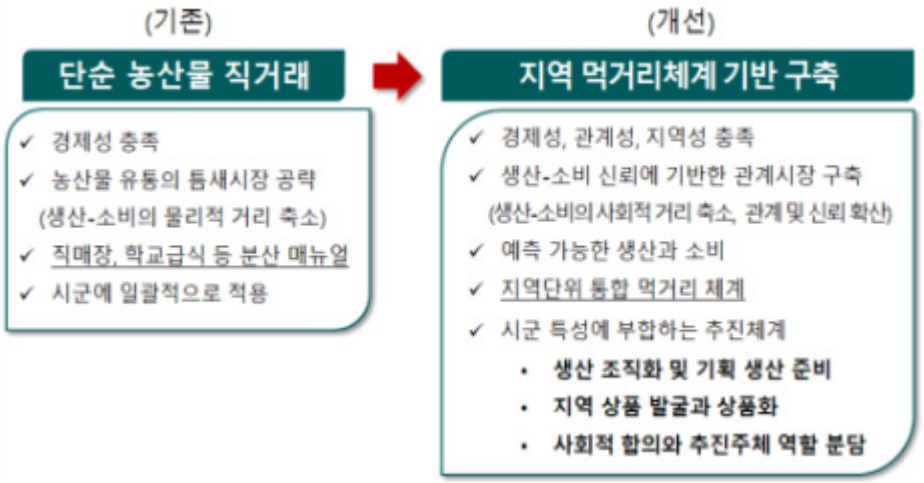
▸ 상부구조: 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 지방자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관련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립)

▸ 하부구조: 지역 내 유통망 구축 = 로컬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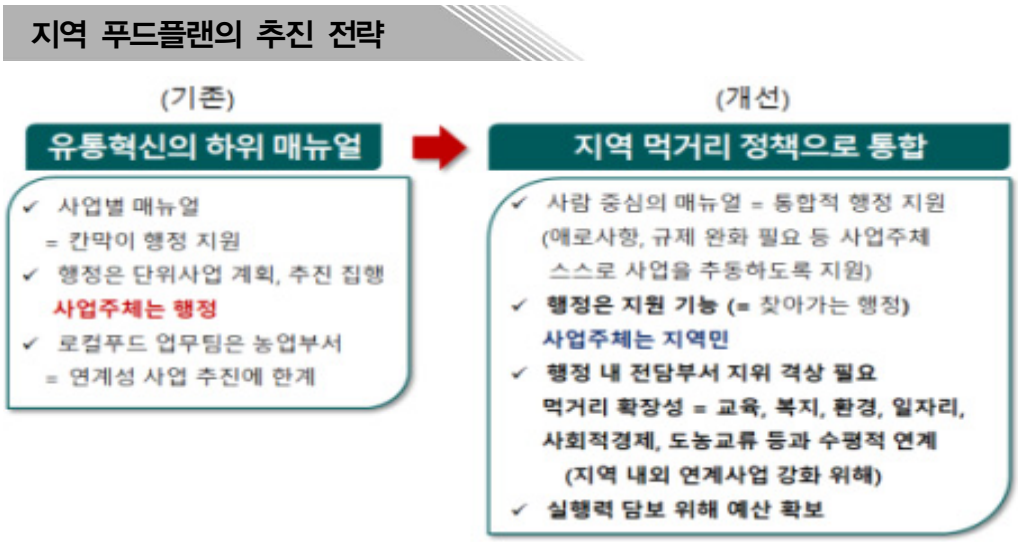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여 지역을 유지시키고,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그 과정에서 지역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함.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은 경제성과 함께 신뢰를 중시하는 지역 내 관계시장을 만들고자 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시장은 가격 기준의 일반 시장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을 모색함.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생산–소비의 사회적 거리'가 축소됨을 의미함.
  - 로컬푸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조직화되고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면 예측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는 활기를 얻고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지역 관광을 촉진함.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려는 정책임.
  - 행정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의 주체는 지역민이지만 지역 농식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민이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은 행정의 역할임.
- 따라서 행정 내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함. 먹거리 관련 사업은 생산~소비 과정의 교육, 복지, 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가능하므로 전담부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직제와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함.



3. 지역 푸드플랜 기대효과

- 사례 지역과 조사방법
  - 먹거리 여건을 계측할 사례는 3개 유형(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의 각 유형별 대상지역은 대전 유성구,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을 선정함.
  - 3개 지자체의 먹거리 현황 조사와 생산자, 소비자, 각종 먹거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비롯한 푸드플랜의 가능성과 참여 의향을 설문조사함.

– 시군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함.

3.1. 지역농업 특징과 먹거리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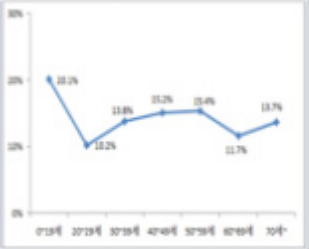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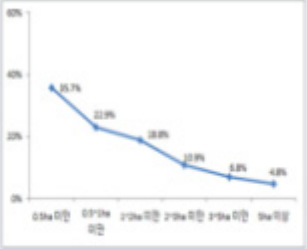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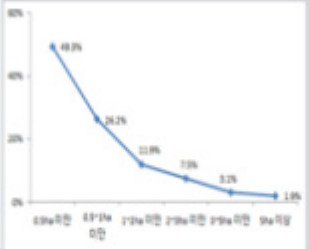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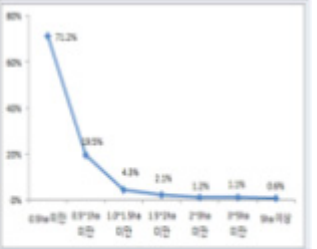
가. 현 단계 지역농업과 푸드플랜의 과제

● 소비 인구 및 생산 규모별 농가 분포

– 총 인구 중 농업인구 비율은 청양군(농촌형) 40.8%, 완주군(도농복합형) 17.6%, 유성구(도시형) 1.7%임.

– 농업인구는 각각 13천 354명, 16천 847명, 5천 910명으로 도농복합형의 농업인구가 가장 많지만 도시형도 농촌형의 44% 정도의 농업인구가 있음.

사례 지역 인구와 경지규모 비교

	청양군(농촌형)	완주군(도농복합형)	유성구(도시형)
연령별 인구			
경지 규모별 농가 비율			
총인구 중 농업인구 (비율)	32,753명 중 13,354명 (40.8%)	95,480명 중 16,847명 (17.6%)	348,428명/5,910명 (1.7%)

- 연령별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청양군(농촌형) 39.4%, 완주군(도농복합형) 25.3%, 유성구(도시형) 12.6%로 농촌형 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음.
- 경지규모는 0.5ha 미만의 비중이 청양군(농촌형) 36%, 완주군(도농복합형) 49%, 유성구(도시형) 71%이고, 1ha 미만의 비중은 각각 59%, 76%, 91%로 도시형일수록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높음.

● 청양군(농촌형) 푸드플랜의 과제

-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레스토랑, 학교급식 등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농 중심의 생산조직화 및 관계형 시장 창출이 미비함.
-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고령농 비율이 높아 소량 다품목 생산 가능성은 크지만 조직화의 경험이 전무함.
-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지자체 직영으로 변경하며 지역농식품 공급에 노력함. 실행체계를 갖추어 기획생산 및 관리 등 역량강화가 필요함.
- 청양군의 제1과제는 지역 푸드플랜이 판매사업 확대보다 먹거리 공공성을 기초로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완주군(도농복합형) 푸드플랜의 과제

- 로컬푸드 정책을 10년 동안 수행하며 중소농의 조직화 및 가공 상품화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 다만, 현재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및 공공급식에 국한되므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등 다수 지역민이 지역농산물에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공급이 과제임.
- 소농 및 고령농의 조직화는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일부 대량 유통하는 중규모 농가는 참여가 부진함. 복지급식 등 지역 내 유통량이 확대되면 중규모 농가의 참여 방안이 필요함.
- 먹거리 관련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생산~가공~물류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업범위가 개별단위에 국한됨. 이들의 수평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일 등 지역민에게 지역푸드 공급되도록 지역 내 유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함.

- 유성구(도시형) 푸드플랜의 과제
  - 농산물 유통의 차원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정책을 지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도농상생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도시형이지만 지금까지 생산 조직화 강화나 관계형 시장 운영 등이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 소득을 제고한 측면에서 도농상생의 가능성을 실현함. 다만 아직 현장 실행조직의 역량이나 사업별 연계성 강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지역 먹거리 공급보다 수요가 큰 도시형은 농촌형 지자체와 제휴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도농상생 원칙과 내용,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제 1과제임.

나. 먹거리 소비 및 공공시장 규모

- 사례 지역 먹거리 소비규모 추정
  - 먹거리 소비 규모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중 '01.식료품·비주류음료'의 수치를 활용하고 1인 가구와 2인 가구 이상의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구분함[4].
  - 청양군(농촌형)은 총 세대수 1만 5514호 모두 근로자외가구로 적용하였을 때 소비규모는 529억 원임.
  - 완주군(도농복합형)은 총 세대수 4만 1623호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각 50%로 적용한 결과 소비규모는 1694억 원임.
  - 유성구(도시형)는 총 세대수 13만 5503호 모두 근로자가구로 적용하면 소비규모는 4689억 원으로 추정됨.
- 먹거리 공공시장 산출 방식
  -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의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시설,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

4)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은 근로자 가구는 1인 가구 15만 1291원, 2인 이상 가구 34만 8813원, 근로자외가구는 1인 가구 15만 7813원, 2인 이상 가구 32만 9317원으로 산정함.

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여 산정함.

- 학교급식은 식재료 소요액 기준, 학생 수에 1식 단가와 연간 이용일수를 곱하고, 아동급식 및 저소득층 먹거리는 각 지자체 복지 예산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 단체급식은 종사자 수에 1일 1회, 240일 기준으로 산정함.
- 노인요양시설은 수용자와 종사자가 1일 식수 3회를 매일 이용한다고 가정함.
- 의료시설 단체급식은 병상을 소유한 의료시설에서 종사인원의 10%와 병상수의 50% 환자가 1일 식수 2회, 매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함.
- 공공시설 식음료 등 먹거리는 도서관, 박물관 등 연간 이용자 중 20%가 단가 3천원의 식음료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함.

● 먹거리 공공시장 규모

- 먹거리 소비 규모 중 공공시장의 비율은 청양군 49억 원(지역의 먹거리 총 소비 중 9.3%), 완주군 284억 원(지역 먹거리 소비 중 16.8%), 유성구 860억 원(지역 먹거리 소비 중 18.3%)으로 추정됨.

먹거리 공공시장의 규모

	청양군(농촌형)		완주군(도농복합형)		유성구(도시형)	
지역 소비 규모(A)	529억원		1,694억원		4,689억원	
공공시장 규모(B)(단위:천원)	4,940,151	100.0%	28,422,906	100.0%	86,027,475	100.0%
학교급식	1,468,735	30.5%	7,049,372	26.1%	40,424,363	46.4%
아동급식	395,590	8.2%	916,250	3.4%	8,001,000	10.0%
저소득층 복지급식	346,134	7.2%	1,008,434	3.7%	1,281,247	1.6%
노인요양시설	1,070,362	22.3%	3,022,200	11.2%	3,459,105	4.3%
공공기관 단체급식	635,760	12.5%	3,646,800	13.5%	13,263,840	16.5%
기업체 단체급식	818,640	17.0%	10,004,400	37.1%	14,400,000	17.9%
의료기관(병원)	170,820	0.6%	2748,450	0.1%	4,747,920	0.4%
공공시설(도서관,박물관등)	34,110	1.7%	27,000	4.8%	450,000	2.9%
지역소비 중 공공시장 규모 (B/A)	9.3%		16.8%		18.3%	

3.2. 사례 지역 푸드플랜 기대효과

가. 기대효과 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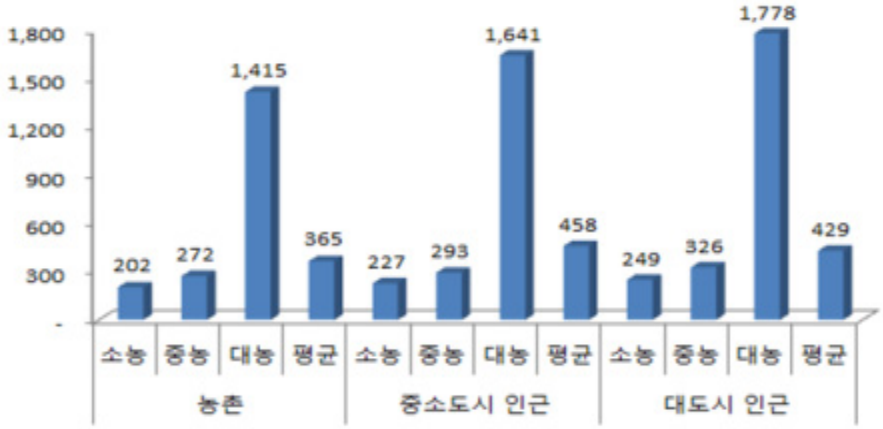
- 지역 푸드플랜은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 등 로컬푸드의 다양한 유통형태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농업·농촌 체험·관광 등 농업관련 2차와 3차 산업을 포괄함.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식품 가공사업은 지역 전통 먹거리 문화와 지역농업의 다양성, 지역의 가공 인프라와 결합한 상품임. 특히 지역 내 농업·농촌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각종 체험·문화 행사는 지역 먹거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 푸드플랜에 핵심요소임.
  -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는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의 추가소득 이외에도 먹거리 공공시장에 접근성을 높이는 물류 서비스와 농식품 가공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의 지속성과 유연성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① 로컬푸드 직매장의 생산자 소득, 지역소비,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가공 및 급식센터의 운영 효과
    ② 사례 지역에서 2020년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 및 급식센터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③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주체의 설문을 통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성적 효과(본문에서는 지면상 생략함)

나.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 및 급식센터 운영 효과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소득증가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생산자의 총소득 증가율, 출하처 변경, 상품화율 증가 등을 조사하고, 총소득 증가는 1) 출하처 변경 효과, 2) 상품화율 증가 효과, 3) 가격결정권 주도 효과 등 3가지 효과로 구분함.

– 조사결과, 출하 생산자는 소농이 60% 이상이지만 대농도10~15%로 과수, 특용작물 등 직매장의 품목 다양화에 기여함. 출하자의 연간 추가소득은 소농 200~250만 원, 중농은 270~330만 원, 대농은 1400~1800만 원임.

로컬푸드 출하자의 연간 소득증가액



자료: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지역소비 활성화
  - 생산자의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5]이 소농은 연간 86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며 대농은 연간 252만 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로컬푸드 직매장의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고용 효과는, 대도시 직매장은 월평균 8.4명, 중소도시 직매장은 8.3명, 농촌 직매장은 6.9명으로 조사됨.
- 가공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완주군 사례[6]
  - '거점농민가공센터' 2개소에서 가공은 200여개 품목을 4개 공동체의 176명이 생산함. 2013년부터 누적 매출액은 34억 원(연평균 약 5억 원)으로 이 중 농업인이 수취한 금액은 26억 원으로 농가 수취율은 76%임.

5) 고령농업인의 경우, 손자녀에게 주는 용돈 비중이 크므로 이를 소비지출로 가정함.
6) 창양군(농촌형)과 유성구(도시형)은 가공센터가 2018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임.

– (재)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과 서울시 강동구의 공공급식에 공급함. 출하자 200농가(법인, 작목반, 개인 등)와 관리·운영에 27명(센터장외 19명, 파트타임 7명)

다.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를 산정함[7].
  -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 기대효과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별 생산자 소득증가 기대효과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개설 가능 직매장 수(A)	5개소	12개소	9개소	2018년 조사
	개소당 월 출하 생산자수	77	103	159	2016년 연구결과
	개소당 생산자의 연간 소득증가분(B)	281	472	682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 소득증가 효과(C=A×B)	984	3,963	4,297	중복출하 30% 가정
가공센터	연간 가공식품 매출 규모	200~300	550~1,200	750~1,500	2018년 조사
	생산자 부가가치 증가 효과(D)	60~90	165~360	225~450	매출의 30% 가정
공공학교급식센터	연간 공공성 먹거리 소비 규모	4,940	28,423	86,027	2018년 조사
	취급 규모(공공성 시장의 최소 20% ~ 최대 30%)	988 ~1,482	5,685 ~8,527	17,205 ~25,808	2018년 조사
	생산자 소득증가 효과(E)	99~148	568~853	1,721 ~2,581	매출의 10% 가정
계(C+D+E)		1,143 ~1,222	4,696 ~5,176	6,243 ~7,328	

7) 청양군(농촌형)과 유성구(도시형)은 2020년, 완주군(도농복합형)은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지역별 지역소비 증가 기대효과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개설 가능 직매장 수(A)	5개소	12개소	9개소	2018년 조사
	개소당 생산자의 연간 소득증가분	281	472	682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의 지역소비 증가율	22.8%	21.8%	24.0%	2016년 연구결과
	개소당 연간 생산자의 지역소비 증가액(B)	64	103	164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C=A×B)	227	862	1,031	중복 출하 30% 가정
가공센터	연간 생산자 부가가치 증가 규모	60~90	165~360	225~450	2018년 조사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D)	6~9	17~36	23~45	부가가치 증가액의 10% 가정
공공학교급식센터	연간 생산자의 소득 증가액	99~148	568~853	1,721~2,581	2018 조사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E)	10~15	57~85	172~258	생산자 소득 증가액의 10% 가정
계(C+D+E)		243 ~251	936 ~983	1,226 ~1,334	

–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지역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총 일자리(A)	25명	72명	63명	최소 5명~최대 7명 가정
레스토랑(B)	2개소	5개소	5개소	2020년 가정
	12명	40명	50명	
가공(지원센터, 마을공동체) (C)	25명	176명	120명	2020년 가정
학교급식센터(D)	18명	27명	40명	2020년 가정, 생산기획~배송, 최소 실무인원
공공 및 단체급식센터(E)	15명	25명	35명	
계 (A+B+C+D+E)	95명	340명	308명	

Ⓔ 01-2018-02

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여름호 | 제21권 제2호 (통권80호)

등 록
인 쇄 2018. 8
발 행 2018. 8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